

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과제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arts change the world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201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2015-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과제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arts change the world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2015. 7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2015년 7월 인쇄
2015년 7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 지역문화부 전희영 과장
지역문화부 이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팩스 061-900-2363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 2015. 7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도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 운영을 위한 지침서 개발 지원 사업 용역’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주관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연 구 원 : 양일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정은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 김용욱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김인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지침서의 개발목표	12
	제2절 지침서의 구성방침	15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교육목적과 비전: 추구하는 인간상	24
	제2절 교육목표	31
	제3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	37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제1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42
	제2절 문화다양성 교육 환경 분석	51
	제3절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현황 분석	57
제4장	교과 영역	
	제1절 총론	66
	제2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	114

제5장 교수법	
제1절 일반 원칙	136
제2절 유의사항	139
제6장 평가	
제1절 교육 후 평가에 관한 제안	142
제2절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용 체크리스트	145
제7장 유의사항 및 제안	
제1절 유의사항	152
제2절 제안	155
부록: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용 체크리스트	157
참고문헌	161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지침서의 개발목표

제2절 지침서의 구성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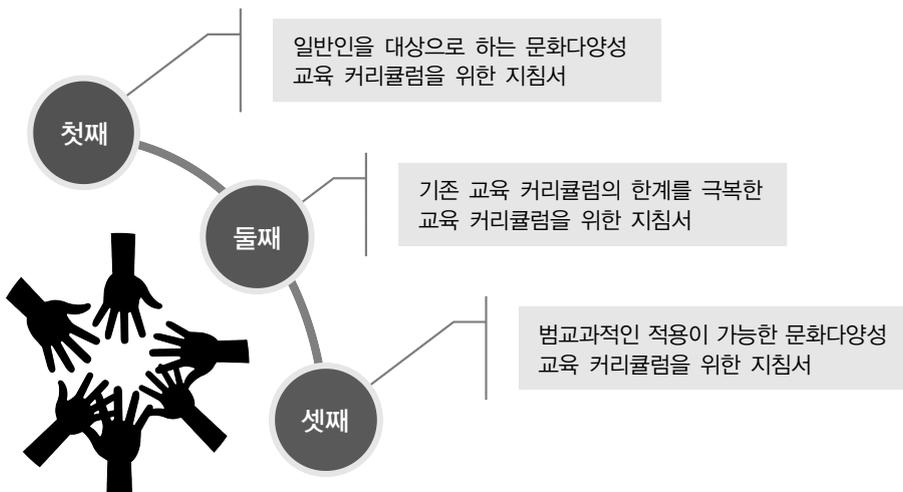
1. 지침서의 핵심 내용
2. 지침서의 구성과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지침서의 개발목표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함
- 교육 대상자인 일반인이란, 일반국민 전체를 일컫음
 - 이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재화함으로써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관습적인 실천을 통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선주민, 즉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며, 기존의 다문화교육 대상이 되었던 이주자와 소수자도 포함됨
 - 바로 이들, 한국사회의 일반인들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과 유의할 점을 담은 지침서를 개발함

〈그림 1-1〉 지침서의 개발목표



제1장 서론

- 기존의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커리큘럼 및 연수 자료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 가능하게 만드는 지침서를 제공함
- 현대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함
 -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이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은 서구에서 개별 국가들이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유네스코가 주도한 국제 선언과 협약을 통해 전지구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임
 - 따라서 서구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할 경우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훼손되거나 교육의 효과가 제한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문화다양성 개념과 관련 논의, 그리고 법규 및 정책이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며 어떤 요소들이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반영하는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 가능하도록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함
 -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재 및 교수법에 대한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검토 위에서 새로운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개발함
 - 문화다양성 교육 및 여러 다른 유관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재가 이미 다수 개발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연수가 시행되어온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도 총체적인 이해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은 절실히 필요하며, 이 지침서는 기존의 교육 커리큘럼과 그에 수반된 교재 및 교수법의 현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개발한 것임
 - 특히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이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개념들과 정책 및 제도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생략한 채 피상적, 도식적으로 제공되고 성급히 적용됨으로써 발생한 혼란과 문제점이 새로운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가 유념할 사항들을 포함하는 지침서를 개발함

제1장 서론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이 여타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영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는 지침서를 제공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고유한 주제와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다른 여러 교과 영역이나 주제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에 실질적인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교육 커리큘럼의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기존의 유관 교육과정에 문화다양성 관점을 도입하여 이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즉, 문화다양성 교육은 고유한 독자 영역을 가지는 동시에 범교과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교육임
 - 이런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은 젠더 교육이나 환경 교육과 유사한 측면을 가짐
 - 젠더 교육과 환경 교육의 경우 이러한 범교과적인 노력은 ‘교과과정의 젠더화[젠더 관점의 도입](Gendering the Curriculum)’ 또는 ‘교과 과정의 녹색화[환경화](Greening the Curriculum)’ 라는 방식으로 시도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문화다양성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고유한 영역과 주제를 내용으로 삼아 독자적인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범교과적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조언을 담은 지침서를 개발함

제1장 서론

제2절 지침서의 구성방침

1. 지침서의 핵심 내용

- 본 지침서가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 새로운 관점의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주어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
 - 즉,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교수법과 평가방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 커리큘럼 개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문화다양성 교육은 한국인 선주민과 이민자, 그리고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자 등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태도, 지식, 언어, 행동을 성찰함으로써 문제점과 한계를 깨닫고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교육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 인식에 더욱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의 변화라는 실천의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함
 - 또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영역, 그리고 교육방법과 활동에 대한 심사숙고 역시 필요함
 - 나아가 교육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측정하며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2. 지침서의 구성과 내용

-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적
 - 이 장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함으로써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적을 밝힘

제1장 서론

- 문화다양성 교육은 과거 교육이 일반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습득, 즉 인지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가치, 태도,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의 함양을 중시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문화다양성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을 때 문화다양성 교육은 학습자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과 소통,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인지, 사회정서, 행동, 문화창조와 표현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함
-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함
- 문화의 경계를 넘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설정하고자 함
 -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역량(cultural competence)나 문화적 리터러시(문화적 해독력, 문화해독능력, 문화소양, 문화지식, cultural literacy)라는 용어의 본래적 의미를 확장하여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화 간 대화 능력’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여 서술함
-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이 과거 다문화교육 등이 중점 대상으로 했던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 모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육대상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언급함

□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이 장에서는 왜 한국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한지, 21세기 초 한국 상황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왜 서구의 문화다양성 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한국 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착안하고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가를 짚어봄
- 문화다양성 개념이 서구에서 형성되었고 유네스코 선언과 협약이라는 형태를 통해 발전한 것이기는 하나, 한국사회는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고민도 상이하기 때문에 현대 한국에서 실시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강조점과 문제의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제1장 서론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 (2)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 및 감각을 갖출 필요, (3) 인권 및 평화 의식의 증진, (4) 인성 교육으로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5) 기존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극복, (6) 문화적 동질성 강조의 한계 인식을 통한 차별과 배제 극복 등 6가지 필요성과 의의를 정리함
- 이를 위해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또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수행되었던 각종 교육과 연수 그리고 연구 등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
 - 법규, 제도, 정책 등을 포함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환경 분석, 문화다양성의 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 분석, 문화다양성 교육과 타 영역 간의 융합 가능성 분석 등이 포함되었으며 관련 연구, 이문서, 자료 등도 분석의 대상이 됨
 - 또한 문화다양성 교육 및 교육대상별 특성, 수준, 수요 파악을 위한 관련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며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는 것 외에 선행 연구 및 이론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특히 기존 문화다양성 교육 및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수요 및 요구를 파악함

□ 제4장: 교과 영역

-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제안과 검토에 기초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편성의 첫 번째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커리큘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영역을 제시함
- 교과 영역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서술되었으며, 총론 부분에서는 개념 및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각론 부분에서는 실제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제안함
- 개념과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커리큘럼 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양지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제공하고 함

제1장 서론

- 문화다양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및 교재,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기관과 교육자 간에 연계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 확보가 필수적임
 - 본 지침서는 공통의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점검, 제시하고 그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한국의 구체적 현실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러한 교육 지침서는 추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활성화 및 일관적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총론 부분에서는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문화의 개념, 다양성의 개념 등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2)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유네스코 선언, 협약, 법규 등의 형성 배경과 내용, 문제점과 의의 등을 검토하였으며, (3) 서구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문화다양성 개념을 현대 한국인과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는 가운데, 이를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
- 각론 부분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다루어야 할 영역과 주제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예술,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교육, 종교 등을 각각 지역, 계층, 세대, 젠더, 소수자 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영역의 내용을 구성하는 각 영역과 주제들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열린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의를 촉구함

□ 제5장: 교수법

- 이 장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함
-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용될 수 있고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수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움
 - 문화다양성 교육 및 다문화교육 등의 전개과정에서 외국에서 개발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교수법이 국내에 소개되고 시행된 바 있음

제1장 서론

-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적절히 사용된 것도 있으나 상당수는 교육 대상의 사회적 배경이나 지적 수준, 또는 인생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에, 혹은 교육 담당자 및 보조 인력의 준비나 경험 부족, 공간의 환경과 설비의 부적절함 때문에 충분한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특히 도입이 쉽다는 이유로 일부 교수법이나 활동 등에 치우친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전체적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또한 특정 직능 단체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교육자를 맡게 될 경우 자신에게 익숙한 교수법으로 활동의 대부분을 편성하여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 문화다양성 교육에서는 특히 지식과 정보 등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정서와 행동, 표현 등의 측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교수법의 개발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담당자가 적절한 교수법들을 선택하고 적절한 조정과 변형을 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보장해 주어야 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교육의 특성상 교육대상자의 구성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현장에서의 유연성과 적응성 확보가 필수적임
 - 따라서 교육자의 역할과 능력, 그리고 경험이 매우 중요함. 표준적인 교수방법과 활동 방안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 높은 교육자 및 교육자 육성을 담당할 훈련가(teachers' trainers) 양성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임

□ 제6장: 평가

- 이 장에서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피드백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교육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교육 평가에 관한 포괄적 지침을 제시할 것임
- 문화다양성 교육의 성격 상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몇몇 영역이나 주제와 관련해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1장 서론

- 특히 교육의 평가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평가는 단순한 교육 효과의 측정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향후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며 행동의 동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제7장: 유의사항 및 제안

- 이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제안 등을 제시함
- 유의사항 1: 이 지침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시범연수를 운영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임
- 유의사항 2: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자는 향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간 소통의 증대와 문화 수용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관련 사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 유의사항 3: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은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서구의 선례나 경험을 추종하거나 글로벌한 추세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함
- 유의사항 4: 커리큘럼 개발자는 학습자들이 문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양성이 창의성과 관련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다양한 목소리와 창의적 표현이 허용되고 고취되는 것이 왜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의사항 5: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복적이고 기존의 질서와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패턴과 표현방식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또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타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교육들에 비해 더 많은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강한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제1장 서론

- 유의사항 6: 문화다양성 교육이 초래하는 변화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기대 가능한 것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기존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과 표현을 바꾼다는 것은 때때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임
- 유의사항 7: 커리큘럼 개발자들은 문화다양성 교육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칫 하면 한국사회 내의 여러 집단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아젠다를 추구하는 각축장이나 갈등의 장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함. 바로 그 때문에 학습현장 및 학습자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 그리고 열린 방식의 학습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임
- 지침서에 따라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일단락되고 시범 강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후에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된 장기적인 전략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교육목적과 비전: 추구하는 인간상

1. 인지 영역
2. 사회정서 영역
3. 실천 영역
4. 문화창조와 표현 영역

제2절 교육목표

1.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본 방향과 기대
2.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
3. 문화다양성 교육의 세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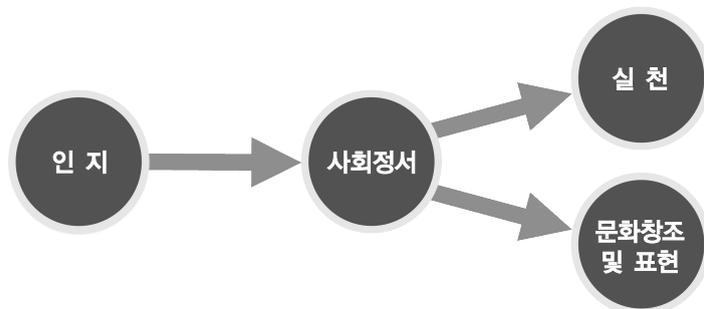
제3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

1. 일반 원칙
2. 세부 제안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교육목적과 비전: 추구하는 인간상

- 본 지침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영역으로 (1) 인지 영역, (2) 사회정서 영역, (3) 실천 영역, (4) 문화창조와 표현 영역 등 4가지 영역을 제시함
- 첫 번째 영역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교육의 영역인 **인지 영역**을 제시하였음. 이 영역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다루었음
 - 인지 영역을 정의한 이후에 가치나 태도에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사회정서 영역**으로 정의함. 전통적으로 교육은 인지 영역만을 강조해왔지만, 문화다양성 교육은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문화다양성 교육의 효과는 의미가 적으므로 행동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실천 영역**을 제시함.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찾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봄. 실천 영역의 행동을 통해 인지 측면과 정서 측면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함
 -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문화창조와 표현 영역** 역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함. 다양성은 창조와 창의의 기반이며, 창의는 인간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는 주요한 기제인 동시에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문화다양성 교육은 **인지 영역 → 사회정서 영역 → 실천 영역 및 문화창조와 표현 영역** 순으로 심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실천 영역과 문화창조와 표현 영역은 상호 독립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어느 한 영역을 다른 영역의 선행 단계로 간주할 수 없음



〈그림 2-1〉 교육 영역의 심화 과정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1. 인지 영역

- 인지 영역은 학습자의 지식과 정보의 습득에 관한 영역임
- 커리큘럼 개발자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인지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들과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출발함
 -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은 사회정서와 행동 및 표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발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됨
 - 개발자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개념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함으로써 개념의 혼동을 막고 지향해야 할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한 인지적 측면의 변화는 개발자가 학습자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타인의 문화적 환경과 어떤 공통점 및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작됨. 또한 개인을 이루는 문화적 속성들을 객관화시켜 봄으로써 자신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한국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게끔 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단일한 문화적 특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특성의 내용을 피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이를 통해 기존에 자신과 다르거나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
- 개발자는 여러 거시 사회적 요소가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수 있음
 - 우선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을 발현시키고 풍부하게 만든 사회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게끔 함. 특정 사회 집단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특성들이 사회적인 위계를 이루는 현상의 이면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역학 관계가 자리하고 있음을 제시함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표 2-1〉 문화다양성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1. 인지 영역	2. 사회정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어떤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타인의 문화적 환경과 어떤 공통점 및 차이점을 가지는지 인식 - 개인을 이루는 문화적 속성들을 객관화시켜 봄으로써 자신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 거시사회적 요소가 문화다양성에 끼치는 영향 인지 -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생산 및 재생산하고 전달하는 미디어의 작용 이해 - 문화다양성 개념과 이를 둘러싼 여러 개념들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및 여타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감정의 변화 경험 -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의 폭 확대 -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편견과 혐오 배경 - 특정 문화적 특성을 탓대 삼아 편협하게 타인을 재단하는 태도 지양 - 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 함양 - 개인의 문화적 특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는 상대적인 구성물이라는 인식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창의적 생산 활동에 기여 - 예술 및 문학 영역 등에서의 소비자, 매개자, 해석자, 전달자 모두가 다양한 문화의 표현이 만개하는 창작물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 거대 자본과 주류 미디어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창작 활동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상업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작품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실천 및 행동, 언어,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변화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현실적이고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자세 함양 - 사회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건강한 공존에 필요한 원활한 소통 능력 함양 -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배격하는 자세 함양 - 인권 보호와 현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인식에 기초한 실천 능력 함양
4. 문화창조와 표현 영역	3. 실천 영역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 특정 문화적 가치가 태생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나 열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헤게모니를 잡는 분파에 따라 사람들이 가치의 위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임을 이해시킬 수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생산 및 재생산하고 전달하는 미디어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커리큘럼 개발자는 세계화의 영향이 학습자가 속한 사회에 직접적으로 발현되어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음
 -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다른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식에 관한 비교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성찰적 시각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그와 동시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함양하는 방향을 제시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한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다양성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문화다양성을 둘러싼 여러 개념들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줌
 - 문화, 다문화, 문화다양성 등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교하게 고찰하여 비슷한 용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함
 -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맥락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정서 영역

- 사회정서 영역은 다른 말로 정의적(情意的) 영역이라고도 칭하며, 학습자의 관점과 태도, 감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영역임
- 지식과 정보의 습득에 의한 인지 영역에서의 변화는 학습자의 사회정서 영역에서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됨
 -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사회 및 여타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과 태도,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회정서 영역에까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인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회정서적 영역의 교육이 중요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며,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특정 집단을 문화적 특성으로 환원하여 매도하거나 특정한 문화적 특성을 잣대로 삼아 편협하게 타인을 재단하는 태도를 지양할 수 있게끔 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동화주의나 배제주의, 혹은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고,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발현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란 상대적인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제시함
 -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배경이 되는 문화, 혹은 자신의 판단에 밑바탕이 되는 문화적 가치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함
 - 또한 다양한 사회관계가 일시적인 합의에 의해 구성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음
- 문화의 내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과 안녕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사회 공헌을 위한 박애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관용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3. 실천 영역

- 실천 영역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영역임
-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실천 영역에서의 학습자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음. 인지 영역에서 사회정서 영역으로 이어지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효과는 실천 영역으로 연결됨으로써 심화될 수 있음
- 실천 영역에서의 교육의 효과는 언어와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실천 및 행동 영역에서의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학습자의 실생활에서 문화의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충돌과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함
 - 이와 같은 문화적인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전적으로 편입되거나 동화되는 방식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끔 함
 - 또한 갈등의 상황에서 상호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모색하도록 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건강한 공존에 필요한 원활한 소통 능력을 길러줌
 - 특정 표현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비하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익힘으로써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혹은 동일한 표현이라도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시키고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도록 할 수 있음
- 나아가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자는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 보호와 현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할 수 있음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4. 문화창조와 표현 영역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의 표현에 초점이 맞추어진 협약임
 - 우리 사회가 문화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다양성은 위축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표현의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매스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거대 상업 자본과 국가 통제가 표현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소통의 창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임
-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창조와 표현 영역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즉 개발자는 학습자의 지식(인지 영역), 가치(사회정서 영역), 행동(실천 영역)에서의 영향이 창의적인 문화적 창작물의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창의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의 주체 뿐 아니라, 예술 및 문학 영역 등에서의 소비자, 매개자, 해석자, 전달자 모두가 다양한 문화의 표현이 만개하는 창작물들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것까지도 이 영역에서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상임
- 더불어 문화다양성 교육은 거대 자본과 주류 미디어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창작 활동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상업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작품들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인식을 함양할 수 있게끔 함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제2절 교육목표

1.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본 방향과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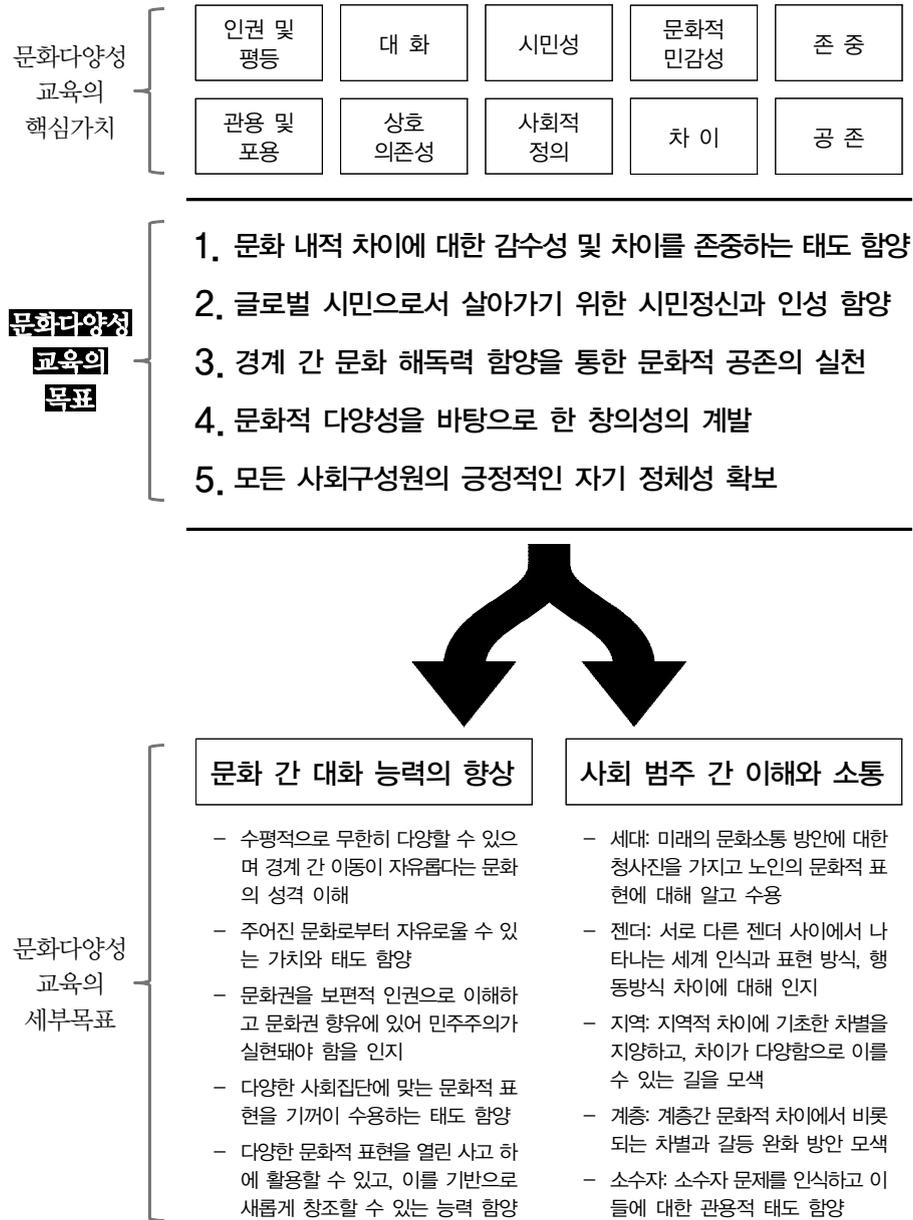
-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본 방향은 소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협약으로 불리는 유네스코의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과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 에서 천명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인식시키고, 나아가 그를 실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 지역문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인류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협약 제 4조 1항 참조),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문제와 연결함으로써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음
 - 즉, 문화다양성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가 획일화되거나 목적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가치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것을 추구하는 정신임
 - 그러한 토대 위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또한 그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에 드러나 있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음
 - **인권 및 평등:** 평등의 원리에 따라 폭력 없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의 보장
 - **대화:** 상호 존중과 개방된 질문 그리고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 **시민성:**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과 공유된 가치와 공동의 신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는 시민성
 -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함양을 통해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간 문화적 역량 획득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 **존중**: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
 - **관용 및 포용**: 자신의 편견과 전제를 재검토함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의 방식인 관용과 포용의 가치 발견
 -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적 기반에서 문화적 동일성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자각과 포용 강조
 - **사회적 정의**: 다양성에 대한 공적 인식과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정의를 통해 차이와 통합 사이의 균형 도모
 - **차이**: 차이 혹은 다름에 기초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구성
 - **공존**: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를 뜻하는 공동체나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직결되는 것으로 차이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수반함. 민주적이고 열린사회로의 시발점
- 이상의 핵심 가치에 준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체득하며 간문화주의적 실천방법을 통해 행동과 표현으로 이행함으로써 개인 및 공동체의 문화 간 소통 및 교류와 창조를 실행하는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다양성과 관용이 창조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이해하고 체득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표현, 이념, 행동방식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함
 - 민족적, 언어적 소수집단과 토착민, 그리고 사회 취약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집단을 포함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문화 간 대화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다수로 하여금 문화적 동질성이 주는 연대와 통합의 가치 외에 차이와 다양함을 통해 창조와 공존, 나아가 연대와 통합이 실현되는 방식을 인지하고 체득하게끔 해 줄 수 있음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그림 2-2〉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 및 세부 목표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 상기한 핵심가치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문화다양성 교육은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이질적인 삶의 방식과 그 담지자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관용하고 존중하며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민감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게 할 수 있음
- 나아가 문화다양성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의 다른 특성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 상황에서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대화와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존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이와 같은 인지, 정서, 실천이 개인과 집단의 개별적 교류에서 뿐 아니라 예술, 문학, 학술연구 등의 표현을 통해서 적절히 전달, 소통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조의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음

2.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

-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본 지침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사회 내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국민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문화내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하는 태도를 체득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둘째, 교육대상자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시민정신과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
- 셋째, 교육대상자가 상호 존중하고 경계 간 문화를 해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문화적 공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넷째, 교육대상자의 창의성 계발에 기여하는 것. 즉 다양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창의성이 발휘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및 집단의 간문화적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창의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다섯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해독력과 문화적 역량을 성장시킴으로써,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자기(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조화로운 사회적 삶과 창의적 협력에 기여하는 것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3. 문화다양성 교육의 세부 목표

□ 문화 간 대화 능력의 향상

- 문화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수평적으로 무한히 다양할 수 있으며 경계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문화의 성격을 이해시키며, 주어진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도록 함
- 문화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의 인식을 제고시킴
 - 문화다양성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가 획일화되거나 특정 목적과 지배적 의견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창의력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임
 - 따라서 문화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이해하고, 문화권 향유에 있어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그를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문화다양성의 가치 인식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의 상황에 맞는 문화적 표현을 기꺼이 수용하며 나아가 열린 사고 하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문화 간 대화 능력의 신장을 도모함

□ 각 사회 범주간의 이해와 소통 도모

- 사회노령화의 문제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의 문화소통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노인들의 문화적 표현과 그 표출에 대해 알고 수용하도록 지도함
- 여성과 남성, 또는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음을 표방하는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세계 인식과 표현 방식, 행동방식에 대해 인지하되, 그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이고 그것이 차이를 다양성으로 이끌지 못할 때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결과와 다양성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을 교육함
- 지역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차이가 다양함의 풍요로 이를 수 있는 길을 모색함
- 계층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갈등의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함
 - 계층간 문화적 차이에 의한 노골적인 구별짓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각 개인 및 계층범주의 사회경제적 입장과 그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행동양식, 사회 집단행동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 또한 계층간 조화로운 공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정책과 구조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책과 구조가 다양한 표현의 공존을 위한 바탕으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함
- 소수자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을 관용적인 태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
 - 21세기의 한국사회에는 지역, 계층,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소수자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와 이주로 인해 발생한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의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특성과 차이를 함께 가지는 집단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들이 추가하는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또 다른 한국문화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제3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

1. 일반 원칙

- 문화다양성 교육은 한국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함
 - 문화다양성의 소통 주체는 결혼이민자나 그 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 모두이며,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 또한 특정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인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이들이 되어야 함
 -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휴전상황이라는 역사적 과정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재생산해온 타자에 대한 경계심을 내재하고 있으며, 타자에 대해 민족주의적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모순적이며 복잡 미묘한 정서와 태도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OECD 가입 국가가 된 이후에도 사회 내에 잔존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종 글로벌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임
- 한국사회는 인구구성이 차츰 다민족적(multi-ethnic)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전환하고 있다’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인구구성만 변화하고 있을 뿐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한국사회는 의견상 상당히 글로벌화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태도와 행동은 자문화중심주의가 강력히 지배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는 매우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여 ‘다름’ 에 대한 열린 의식과 태도를 고양시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시급함. 이는 단기간의 홍보나 일부 인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 특히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소위 ‘지배적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문화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소수자들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실시되었던 다문화교육은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음
 - 다른 한편 여성이나 취약계층 또는 성소수자 등이 문화다양성의 중요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경향도 있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소수자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를 제공해주는 ‘시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평소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사회적인 운동이 되어야 함

2. 세부 제안

- 이상과 같은 일반 원칙을 유념하되, 다만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동질적인 소집단들 또는 범주들로 대상을 세분화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다 초점을 뚜렷하게 맞추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이처럼 동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교육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무엇보다도 문화다양성 교육을 담당할 교육요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 즉 교육자 훈련가(teachers' trainers)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업무의 성격상 이주자 및 그 자녀 등의 소수자를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은 출입국관련 법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기타 대민업무 담당자들을 양성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임
 - 방송과 언론 등 매스커뮤니케이션 종사자, 문화재단 및 문화 관련기관 종사자, 문화예술인, 예술교육 강사 등 문화다양성의 표현과 소통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우선순위가 높음

제2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표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리하게 되는 기업인 및 경영자 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환자 및 보호자를 대면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의료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질적 구성을 통한 효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대상 집단을 다양한 성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음
 - 이질적으로 구성된 집단인 경우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우위에 있는 교육자로부터 배우는 수직적 학습(vertical learning) 외에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호 자극을 통해 배우는 수평적 학습(lateral learning)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질적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교육담당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적절한 동기부여와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대상자 상호 간의 작용을 통해 커다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음
-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음. 이는 교육담당자의 능력과 경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고 배합되어야 하는 문제임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제1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1.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
2.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 및 감각 함양
3. 인권 및 평화 의식의 증진
4. 인성 교육으로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
5. 기존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극복
6. 문화적 동질성 강조의 한계 인식을 통한 차별과 배제 극복

제2절 문화다양성 교육 환경 분석

1. 한국사회의 글로벌화
2.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문화다양성
3. 한국에 도입된 다양한 교육 의제와 문화다양성 교육

제3절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현황 분석

1. 문화다양성 개념 및 협약 연구
2. 문화다양성 정책 및 문화다양성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3.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선행 연구
4.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프로그램 실태 분석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제1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 한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조약 당사국으로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불행히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이를 위한 교육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특히 일제 강점기와 분단이라는 경험은 단일 민족과 문화라는 정체성 및 국민적 통합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기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음
 - 그 결과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부족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국제화 및 결혼이주자의 증가와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각종 차별과 배제가 온존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임
-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인간 집단 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가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소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창의적 에너지를 가지고 평화롭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임. 특히 현대는 세계화와 국제이주가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주에 수반되는 생활 방식을 보다 빈번히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음
- 한편 상품과 이념이 급속도로 교류되는 가운데 집단 내부적으로 공유된다고 가정되었던 ‘문화’ 에도 각 개인의 경험과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점차 다양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한국사회 또한 다민족적(multi-ethnic) 인구 구성이 심화되고 다양한 가치와 관습을 소통하는 인구가 성장함에 따라, 문화적 통합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만큼이나 문화다양성을 관용하고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이미 한국을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 다문화적 공존을 강조하며 정책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문화정책에 갖든 담론의 이면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발전보다는 국민국가 체계로의 동화와 통합의 가치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그리하여 다문화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사회에서는 '다름' 혹은 다양성을 특수한 것으로 인식해 분리시키거나, 이주민을 다름의 유일한 담지자로 가정해 주변화하고, 다양성을 일방향적으로 주류 문화체계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등 실제로는 다문화적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미숙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한국의 소위 다문화정책과 교육 역시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촉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음
 - 이주민과 그들의 후세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 것임
 - 그러나 이들을 개개인의 능력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문화라는 동일 범주 하에서 취급함으로써 이주민이 지닌 다양성이 빛을 보기보다 이들이 오히려 더 주변화되고 비하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와 그러한 노력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

- 재능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함
 - 창의적인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의 확보도 매우 중요함
 - 글로벌화 시대에는 창의적 인재들이 유리한 환경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미래의 성장이 지속적이라면 소수의 창의적인 엘리트의 존재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구성원 전체의 창조적 재능을 이끌어내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함
 - 미래의 창조경제는 창의성과 지적재산을 핵심 투입요소로 하는 창조산업을 핵심으로 하는데, 창조경제의 가치 원천은 소수 전문가집단에 의해 생산되는 특정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임
 -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내재된 잠재적 창의성을 발견하고 이를 자극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성장의 지속을 위해 중요함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그림 3-1〉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1.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	
2.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 및 감각 함양	
3. 인권 및 평화 의식의 증진	
4. 인성 교육으로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	
5. 기존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극복	
6. 문화적 동질성 강조의 한계 인식을 통한 차별과 배제 극복	

- 창의성의 발견과 발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여건의 하나는 다양성임. 창의성은 다양성을 허용하고 자극하는 개방적 환경을 필요로 함. 창의 도시에 대한 논의는 다양성을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지적하고 있음
- 문화의 다양성은 창의적 인재를 끌어들이고 개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 창의적 인재와 창의성의 발현은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노베이션은 미래의 성장과 가치의 창조를 위해서 중요함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2.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 및 감각 함양

- 글로벌화의 진전과 국제적 이동과 교류의 증가에 따라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국민 국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세계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와 감각을 갖추고 세계시민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은 글로벌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됨
 - 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주최하면서 외국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음. 이러한 캠페인은 한국인의 기존의 의식과 행동으로는 국제적 교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던 것임
 - 이러한 캠페인들은 비록 단발성이기는 하였으나 한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국제행사에 수반되었던 손님맞이 캠페인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는 글로벌시민교육의 효과를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켜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임
-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사회 구성원과 타 민족 구성원 간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등을 포함, 국내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음. 아울러 한국사회의 구성원들도 해외 체류와 관광 등을 통해 외국인들과의 접촉과 교류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 그리고 감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편익과 우호의 증대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 평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
- 이러한 문제는 외국과의 상호이해의 증진과 상호교류의 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폐쇄적 방어적 자기중심적 민족주의의 관점을 넘어 보다 개방적인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즉, 우리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예찬이나 가치편하의 태도를 경계해야 함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3. 인권 및 평화 의식의 증진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단지 외국어나 외국문화를 잘 알고 외국인과의 교류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도 관련이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피부색, 언어, 출신 국가, 민족, 계층, 젠더, 문화 등에 기반을 둔 억압과 차별, 배제는 일종의 구조적 폭력이며 이런 억압과 차별, 배제의 지속은 한국사회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인식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한, 나 또는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동조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친절이나 호의적 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함
 - 세계인권선언이나 여성차별철폐조약 그리고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등은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
 - 물론 인권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 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로서의 기본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현재의 국민국가 체제와 국제법 질서 속에서 국민국가는 현실적으로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기본권의 인정과 보호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본권은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던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음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단지 외국인이나 문화적 타자에 대한 것이 아님.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도 포함하는 것임
 - 외부의 타자에 대한 관용과 인정과 존중은 내부의 이질적 요소나 소수자에 대한 관용, 인정, 존중과 밀접히 연관됨
 - 관용과 인정과 존중은 사회 구성원들의 기질과 잠재력의 발현을 덜 억압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자유롭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증진은 차별받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며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을 보다 자유롭게 창의적이며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한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함

4. 인성 교육으로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

- 문화다양성 교육은 인성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문화다양성 교육은 인성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동시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함
- 우리사회가 21세기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들에게 요청하는 인성은 좁은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될 것을 넘어서는 것임. 공감과 배려는 개인적인 수준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것이기도 함
- 21세기형 인성 교육은 불평등과 억압, 차별과 배제는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개인적 차원의 수양과 도덕 재무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가치, 태도, 행동, 표현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함

5. 기존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극복

- 지난 10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사회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교육도 의욕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다양성 교육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집중되었고 부분적으로 외국 인노동자와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음.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와 행동요령 등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교육은 일정한 기여도 했고 의미도 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다만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관습적으로 재생산해내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했음
- 또한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알리고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각종 정책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한국사회구성원들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계몽적 논의들은 이들이 글로벌화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사회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가치가 있다는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음
- 문화다양성 교육도 일각에서 추진되어왔으나 문화 자체 또는 다양성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나 관심보다 문화 소수 집단의 복지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음
- 기존의 다문화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국사회구성원들이 잠재적 가해자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폐쇄성과 차별과 배제의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문화적 동질성 강조의 한계 인식을 통한 차별과 배제 극복

- ‘단군의 자손’ 논의와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는 식민지시대에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해방 이후의 분단 과정에서 또한 6·25와 그 이후의 국가적 동원 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
 - 단군신화의 내용은 혈연적 단일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음. 단군신화는 환웅의 도착 이전에 이미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왔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적 단일민족의 근거로 간주되고 있음
 - 한국인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일성이 강한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은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독립 투쟁을 전개해야했던 식민지시기 민족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매력이 있는 언설이었음
 - 이러한 혈연적 단일민족 논의와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정권의 유지와 자원동원에 매우 유용한 환경과 도구를 제공했음
 - 또한 권위적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도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 담론의 범위 내에서 보다 선명한 민족주의를 위한 경쟁을 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북한 정권 역시 민족해방투쟁의 수행을 정통성의 근거로 주장했으며 주체사상 등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담론을 전개하면서 민족주의 선명성 경쟁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배타적 단일민족론은 단순한 식민주의의 유산이 아니며 전후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로이 재생산되고 발전된 것이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배경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일민족과 문화적 동질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특징을 설명해왔던 종래의 관념은 점점 더 강한 도전을 받고 있음
- 단일하고 우수한 한국문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사회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입지가 좁아진 측면이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와 모습의 표현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함
- 단일 민족과 문화적 동질성 강조는 국가발전의 성과적 측면 이외에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고민의 여지 부족이라는 한계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
 - 지역, 학력, 계층, 직업, 성별, 혼인 상태 등을 기준으로 구별을 짓거나 차별을 하는 경향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임
 -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폐쇄성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근거에는 단순한 편견과 오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집단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직시해야 함
 - 사회 내 집단 이기주의는 종종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흔히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성찰과 대책도 어려움
 - 경쟁자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희소한 자원을 독과점하려는 이해 타산과 함께 기존에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도 구별 짓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런데 다양한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차별과 배제의 계기로 사용하고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이기주의와 폐쇄성과 차별과 배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억제하며 대외적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개방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케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음
 -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일종의 구조적 폭력에 해당함. 얼핏 보기에는 외부자들에게 국한된 것이며 한국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쉬움
 - 그러나 이러한 외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사실상 내부적인 차별과 배제와 표리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 내부적인 차별과 배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주 및 정주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교육을 통해 다양성의 존중과 그 필요성의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은 매우 시급함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제2절 문화다양성 교육 환경 분석

-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교육 환경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수요가 성장해 왔음
 - 첫째, 한국사회의 글로벌화가 가속되어 왔다는 것
 - 둘째, 한국사회가 다민족 사회로 이행하면서 문화 간 이해 및 문화다양성 인식의 필요성이 커져 온 것
 - 셋째, 다양한 교육 의제와 교육 프로그램들이 한국사회에 도입된 것

1. 한국사회의 글로벌화

- 한국사회의 글로벌화는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전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어 한국의 사회문화를 크게 변화시켰음
 -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강화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은행과 IMF가 주도하는 구조개혁은 글로벌 표준이라는 명분하에 한국경제와 사회구조를 급속하게 변동시켰음
 -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어 정치나 경제영역을 넘어서 한국의 사회문화에 글로벌화로 인한 변동을 촉진시켰음
 -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기성세대와 차별화시켰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외국의 대중문화를 직접 소비하게 했고 새로운 문화적 창의성을 강화시켜 나갔음
 - 한국의 대중문화도 '한류' 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화가 가속시키고 있는 문화영역의 역동성은 한국의 전통문화나 문화정체성에도 근본적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2.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문화다양성

- 한국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이주로 인해 다민족사회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시민사회는 1990년대 내내 이주민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혁과 한국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 한국사회의 이주민은 정부의 체계적 이민정책에 의해 유입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의 물결에 한국사회가 편입되면서 벌어진 국제이주의 결과임
- 이주노동자는 수용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없는 상태에게 국내에 상당한 규모로 체류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이 양산되었고 그것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주노동자를 수용할 정책적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상당한 규모로 체류하게 된 이주노동자를 제도화 한 것이 1990년대의 산업연수생 제도임
 -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연수생 신분으로만 대우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국내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음
 - 그 결과 임금체불, 산재피해 미보상,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등 무수한 차별을 양산하게 했으며, 시민사회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혁을 정부에 요구했고 그 결과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 내 왔음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되었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써 공존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와 계몽이 진행되었음
-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음
-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실질적 이민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늘어난 것
 - 정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 종합지원대책을 내 놓은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며 정부 차원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음
 - 이 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과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사회통합 교육, 이주민 지원단체의 활동과 다문화주의 계몽 등을 망라하고 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표 3-1〉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정부 및 시민사회의 이주민 지원정책

구 분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 교육	이주민 지원단체의 활동 및 다문화주의 계몽
지원 주체	여성가족부	법무부	시민단체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의 언어교육, 한국문화 적응, 취업훈련, 한국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간 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 하는데 필요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운영하며 이수자에게 일정한 혜택 제공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시민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전망 제시

3. 한국에 도입된 다양한 교육 의제와 문화다양성 교육

(1) 국제이해교육

- 1990년대 중반 국제화라는 새로운 정책 의제를 제시한 김영삼 정부는 곧 국제화를 세계화 개념으로 대체하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서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음
-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가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하고 강조한 국제이해교육이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국제이해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한국교육의 맥락에서 정립하기 이전에는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교육의 방편으로 수용되기도 했음
- 그러나 한국정부가 2002년 유네스코 파리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을 증진시키는 지역본부인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을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이해교육이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음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에 국제이해교육을 보급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그 과정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문화다양성(문화 간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평화 등을 주요 교육영역으로 정립하게 되었음
- 제7차교육과정에는 국제이해교육이 재량학습 과목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 이후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 개발, 학교 급별 국제이해교육 교과서 개발, 교사 재교육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자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음

(2)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우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운동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정부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순한 환경의식을 넘어서 사회 전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 내에 문화다양성 가치가 반영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게 되었음

(3) 양성평등교육

- 한국사회의 젠더 이슈는 단순히 여성차별의 극복을 넘어서 양성평등으로 발전해 왔으며, 양성평등교육은 한국사회의 오랜 가부장적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교육의제로 수용되었음
- 양성평등교육은 젠더 간 소통과 이해, 젠더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의 포함되었고, 이러한 교육 수요와 문제의식 역시 문화다양성 교육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임

(4)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세계시민교육은 국제개발협력 지원 활동가들이 오래 전부터 강조한 교육 의제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새롭게 주제의 영역이 구성되고 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한국정부 역시 2015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했음. 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범정부적 지지를 표명한 것임
- 세계시민교육이 포함하는 주제들 역시 문화다양성 교육과 서로 연관되어 진행될 수 있는 영역임

(5) 다문화교육

-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에 대한 실질적 필요와 한국사회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 의제로 정부가 공교육 영역에서는 추진해 온 다문화교육은 실제 이주노동자 자녀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 다문화교육 역시 교육 당국보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국제아동협약의 정신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교육당국이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교육의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 학교를 시작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문화교육이 공교육에 도입되었음
- 다문화교육은 이민의 역사나 해당 국가의 인종 및 민족관계의 특성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인종관계의 틀 내에서 다문화교육은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종의 교육 운동으로 자리잡았음
 -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은 퀘벡 의제에 따라 이중 언어 사용과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유럽 국가는 북미에 비해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목적에서 차별성을 보임. 오랜 기간 이민 국가를 선언하지 않았던 독일이나 이민자에게 동화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프랑스는 이민자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 및 취업 교육이 활발한 반면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강조하지는 않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한국의 경우 이주민 지원 정책의 장기적 전망이나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주민 통합의 방향이나 원칙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 지원 교육(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적응교육, 취업지원 교육 등)에 머물고 있는 현실임
 -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수학능력 제고 교육, 지역 문화유산이나 박물관 견학을 통한 한국문화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최근 들어 일반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관행적인 다문화교육은 교육 대상을 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국한시키고 그 내용도 대부분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언어, 한국문화소개, 지역사회 정착, 취업지원 교육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학계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그 한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음

(6) 문화다양성 교육과 선행 교육 의제와의 상보적 관계

-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교육 의제들은 문화다양성 교육이 포괄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교육 소재를 공유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교육 의제의 추진을 담당해온 온 학자, 교사, 공공기관 등과 협업할 필요가 있음
- 선행 교육 의제에 기반을 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중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 국제이해교육에서 개발한 문화 간 이해 콘텐츠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제3절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현황 분석

1. 문화다양성 개념 및 협약 연구

- 문화다양성 개념이나 협약 자체에 대한 국내 학계의 학술연구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음.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전후에 협약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는 문화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주로 문화행정이나 경영 분야에서 응용학문 수준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임
 - 또한 문화정책의 입안이 학문적 토론과 장기적 비전에 의해 추진되기 보다는 공무원의 대중적 정책 입안과 이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문화운동 단체들의 입장 표명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임
 - 초기에 문화다양성 개념을 소개하고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을 논의한 것은 협약 체결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부 측 연구(정갑영 외 2004, 2007)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차원에서 추진되는 문화다양성 협약과 선언 등을 한국사회에 소개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내에 문화다양성 개념이 소개되고 확산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왔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고, 외국 문헌을 번역 편집하고 국내 학자의 글을 추가하여 자료집을 편찬해 냄(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2008)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국내 학자들이 문화다양성 개념과 협약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국사회의 문화정책이나 문화산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있음(김세훈 2006, 이동연 2006, 임학순 2006)
- 그러나 이런 논의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후 실질적인 후속연구로 이어지지 않았음. 한국 정부가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후 한동안 의미 있는 후속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이후 한국사회가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갈등과 논쟁의 파고에 들어섰기 때문임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국내에서 이루어진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연구의 갈래는 크게 통상의제와 관련된 연구,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협약체결과정에서의 국가별 전략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표 3-2〉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국내 연구

통상의제와 관련된 문화다양성 논의 연구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협약체결과정에서의 국가별 전략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통상에서의 문화적 예외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소개하는 글(문시연 2005, 2007) - 한미 FTA 협약 체결과 관련되어 문화교역과 문화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강내희 2003, 김정수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협정 체결이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영화진흥위원회 2003) - 문화다양성협약과 한미방송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연구(나낙균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박선희 2009, 조한승 2008)

- 이상의 연구들이 문화다양성 협약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세분화된 주제에 천착하거나 통상과 관련된 특수한 주제에 머물러 있어 문화다양성 개념과 협약 자체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제기됨. 협약에 등장하는 문화다양성 개념을 해체하여 분석하는 연구(박애경 2011), 협약을 이해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관련 협약, 회의, 선언 등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연구(한건수 2014)등이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이나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협약 체결 당시 집중적으로 조명된 후 후속연구로 이어지지 않았음.
 - 문화다양성 개념이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등장했고 유네스코를 통해 협약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며, 국가별로 이를 수용하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사회는 문화다양성 개념과 협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함
 - 문화다양성 개념과 협약은 역사적·정치적 맥락과 경제적·계층적·민족적 이해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이 필요함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2. 문화다양성 정책 및 문화다양성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들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주제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제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할 지표 개발, 그리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었음
 -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방향(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1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략수립(조옥라 외 2013),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다양성 확산 시범사업 평가연구(임학순 외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이동연 2013, 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김규원 외 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 연구(류정아 2014),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류정아 2015) 등
-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 수립과 같은 체계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정책의 논리적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된 면이 있음. 그 결과 개별 연구들이 서로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여전히 다문화정책과의 개념적 혼란이 보이고, 또한 정책 구상의 기본 틀에서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기도 함 (김효정 2012)

3.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선행 연구

- 다문화교육 관련 논문에서 부수적으로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 교육을 언급한 연구들은 무수히 많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문화다양성 개념이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다문화교육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어 특별히 검토할 만한 연구가 없음
 -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을 연계해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있으나(김승환 2007), 이 연구도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 보기에는 힘들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다양성교육 관련 연구를 주관해 옴
 - 문화다양성교육 심포지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움을 주최함
 - 2012년 두 차례의 문화다양성교육 심포지움 내용: 문화다양성 교육의 범주를 기초인성 교육의 맥락에서 논의(이동성·주재홍 2012a)하거나,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공존을 통한 창의성(이정덕 2012),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개념과 방향(이동성·주재홍 2012b)과 같은 원론적 논의에서부터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구체적 내용도 발표되었음. 예를 들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설규주 2012a, 2012b)이나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김수이·장진혜 2012)등이 그러함
 -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 공유행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3년 <문화다양성 공유공감>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실태(한준 2014)를 보고하고 향후 한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이동연 2014), 그리고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문화의 의미와 역할(차재근 2014)를 토론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다양성 교육을 한국사회에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관련 연구자들이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공감적 이해를 넓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인 노력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 공유행사를 들 수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3년 <문화다양성 공유공감>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실태(한준 2014)를 보고하고 향후 한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이동연 2014), 그리고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문화의 의미와 역할(차재근 2014)를 토론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체계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포럼과 시험적 교육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 연구를 전담해 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업무를 인계한 상황에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연구주체의 확립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4.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프로그램 실태 분석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음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분석: 공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관련 행정인력, 활동가, 문화예술인 등의 대상을 아우르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발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음 (강인애 외 2012a, 2012b; 김영천 외 2012, 2014; 임철일 외 2013; 추미경 외 2014a, 2014b, 2015)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지식(인지) 영역, 사회정서(정의적) 영역, 행동(실천) 영역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시범 수업 소재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육 커리큘럼이 가져야 할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음. 교육학에서 활용되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모델과 이에 근거한 교안 및 교수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개념 및 관련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된 학습 주제 영역이 문화다양성 교육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 있음
 -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용어들과 개념들이 용어사전 수준에서 나열식으로 정리되고 있어서 그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많은 개념들은 해당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 국제 정치적 상황, 학문적 의미 등을 이해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지 않고 있음
 - 일부 선행 연구 중에는 문화다양성을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문화다양성 개념을 오도하는 것임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많은 연구가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리고 문화다양성 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차별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를 소개하고 있으나 문화다양성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일부 연구는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작의적인 용어와 개념 분류를 시도하고 있음(추미경 외 2014a, 2015).
 - 다문화주의, 간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등 다문화주의와 연관된 개념을 학계의 논의 맥락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전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 혹은 이전 개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되고 있는 개념으로 소개함
 - 그 결과 독자 및 학습자로 하여금 다문화주의 자체도 도식적으로 이해하게끔 만들고 있음
- 교육 커리큘럼을 모듈로 만든 시도(추미경 외 2014a)에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주제와 대상 구분으로 인해 문화다양성의 표준적 가치와 의미가 약화된 경우도 보임.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조합된 커리큘럼(상게서: 82-86)의 경우 제시된 과목명과 내용이 문화다양성 교육과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그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모호한 경우도 있음
- 형식적 구성과 내용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연구는 『문화다양성교육 커리큘럼 및 매뉴얼 연구』(임철일 외 2013)이나 이 역시 개념의 소개와 분석에 있어서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정의, 목표, 내용체계를 일관되게 구축해 내고 있음. 특히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 여타 교육과정과 소통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이 연구 역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본적 개념의 소개와 분석은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예를 들면, 문화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류학 개론서나 개론 과목의 수업 노트에 나오는 수준의 설명을 아무런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임철일 외 2014: 13-14), 문화다양성 개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상적 정의와 소개에 머물러 있음

제3장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안은 대부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한 연구와 연계되어 작성된 것임
 -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한두 꼭지 정도로 언급되는 데에 그치거나, 혹은 특정 대상 집단을 위한 시범교육 자료로서만 제시되고 있음
 - 그 결과 교육 커리큘럼 전체를 포괄하는 일관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시범 수업으로 제시된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음
 -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과 교안 개발을 주도한 연구진 간에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가 정확하게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임
 - 일부 매뉴얼에서는 여전히 다문화교육을 문화다양성 교육의 중요 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종과 같은 주요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화다양성 취지에 어긋난 기술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김영천 외 2013: 62)
- 문화다양성이라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의 공교육 교과목 내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수행하는 시론적 연구도 제시되고 있음
 - 대표적인 연구로, 김다원(2010, 2011)은 사회과 과목 내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음
 - 임철일 외(2013)도 각급 학교의 기존 교과목에서 문화다양성 교육과 연관된 개념과 소재를 분석하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제4장

교과 영역

제1절 총론

1.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가
2. 문화다양성 관련 유네스코 선언 및 협약과 국내 법규
3. 현대 한국인과 문화다양성

제2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

1. 개요: 주제의 제시 방식
2.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 영역
3. 문화다양성을 발생시키는 요인

제4장 교과 영역

제1절 총론

1.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가

□ 문화다양성 개념의 혼동과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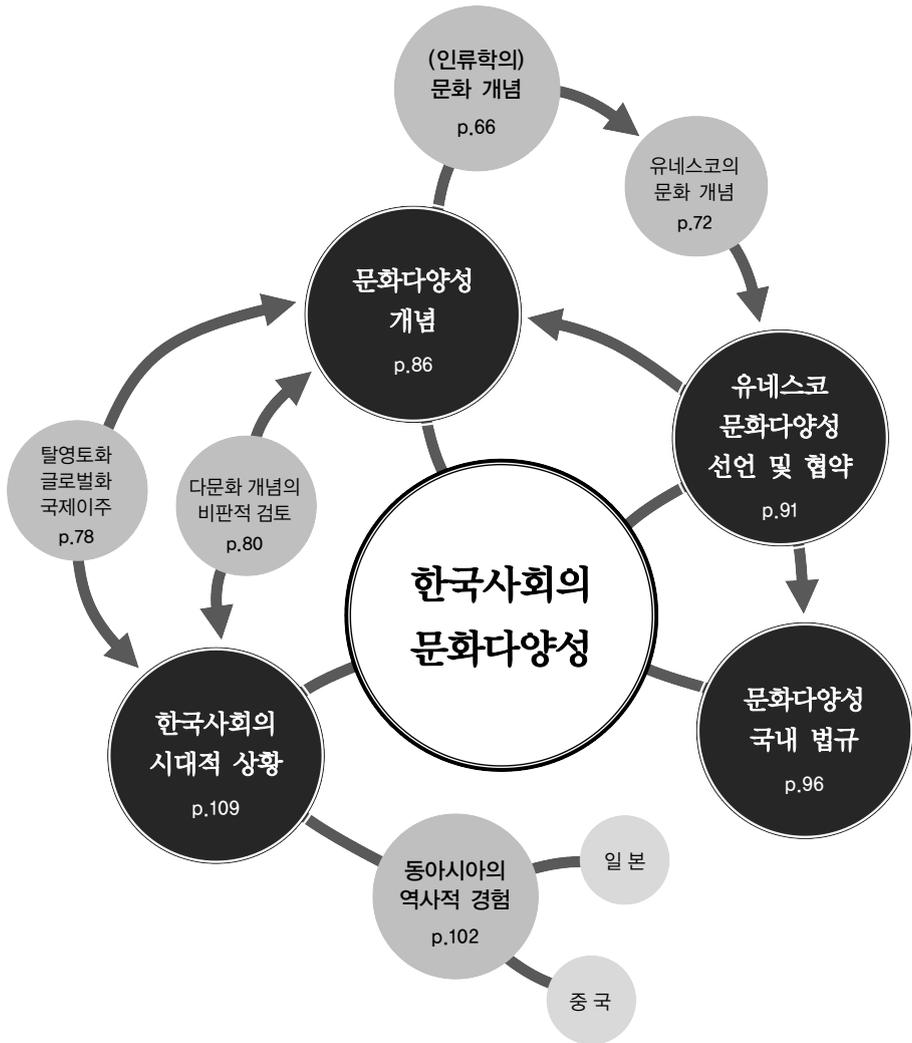
-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하나 이상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하기도 함
-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과 공생이 일상화, 보편화되면서 문화, 다문화, 문화다원화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 관련 정책과 함께 사람들의 삶에 이정표로 제시되어왔음
- 그러나 그 각각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종종 집단 간 편견으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묵과한 채 단순히 전 지구적 추세를 좇거나 다문화적 공존을 앞서 경험했던 타국의 사례를 한국에 대입하려는 시도 속에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유도하기도 했음
-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여러 차례 다른 문헌들에서 개략적으로 소개가 된 바 있으나, 문화다양성 개념이 전개되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다양성이 발현되는 경제적, 계층적, 민족적 이해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은 다소 부족함
- 그 결과, 문화다양성 교육이 21세기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왜 필요하며,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입체적인 분석 역시 부족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 및 연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한 바탕 위에 다양한 문화의 공생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함양이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며, 문화 관련 개념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함

(1) 문화 개념의 전개와 발전

- ‘문화(culture)’와 ‘문명(civilization)’은 근대 서구의 자기 인식과 더불어 발전된 개념으로서, 국민국가, 민족주의, 지리상의 발견과 세계화, 제국주의,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전쟁 등의 역사적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해 왔음

제4장 교과 영역

〈그림 4-1〉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을 둘러싼 개념의 가치



제4장 교과 영역

- 개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문명과 문화는 초기에 그 의미가 서로 혼용되기도 하였고, 더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문화’를 둘러싼 혼란과 오해를 수반하며 담론 간, 개인 간, 집단 간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음
 - 특히 다문화주의 담론의 경우, 다민족 사회인 국가들에서 오랜 고통과 고민을 거쳐 형성된 단계나 과정을 배제하고 최종단계의 담론만 소개된 전형적인 예임
 - 현대는 종래 흔히 문화의 대표적 담지자로 여겨지던 국가 간의 교류와 접촉이 세계화와 국제이주로 인해 심화되며 다문화적 현상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성이 문화의 내적 차이에 의해 더욱 복잡화되는 양상을 목도하는 시기임
 - 차이와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이 형성되기도 하는 가운데, 불통과 오해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문화다양성이 주는 풍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개념이 탄생하고 진전되어온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쟁점과 문제점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문명(civilization)
 - 문명은 라틴어의 시민(civis)과 도시국가(civitas)의 형용사형인 ‘civilis’ 및 ‘civilitas’ (시민권, 공손함, 예의바름, 세련됨)에서 유래되었는데, 이후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을 기반으로 의미변화를 거치게 됨
 - 로마시대에는 ‘미개한’, ‘야만적인’, ‘군사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도시적 삶의 세련됨과 우월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통용되었고, 근대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단순히 정중함과 세련됨을 가리키는 말이었음
 - 점차 봉건영주들의 궁중예절(courtoisie)보다 더 우아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절대왕정 초기에 서서히 궁중에 진출하기 시작한 부르주아 계급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후 궁정귀족들의 허례허식과는 달리 학문과 예술, 문학, 종교 등 정신적 영역 및 사회, 정치,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발전과 개혁을 지칭하기에 이르렀으며, 시민사회가 곧 이상적인 사회로서의 문명사회로 여겨지게 됨

제4장 교과 영역

- 특히 프랑스 혁명 후에는 프랑스 문명을 그 모범으로 한 유럽문명이 하나의 보편적 문명이라는 생각이 등장하게 됨. ‘문명’ 개념은 유럽 내부나 외부의 야만적인 타자들을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유럽을 발전의 정점에 두는 진보 개념과 밀접히 연관됨

□ 문화(culture)

- 문화는 라틴어의 ‘경작하다(cultus, cultura)’ 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며 경작되지 않은 땅과 경작된 농토 사이의 차이처럼 모든 인간의 정신적 개발 및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근대에 들어와 ‘문명’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다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다가, 독일에서 ‘문명’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
- 문화(Kultur, culture)는 보다 고상한 차원의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가 영국, 프랑스보다 늦었던 독일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경제적 토대와 정치력이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과 크게 달랐던 데 기인함
- 즉, 독일에서 등장한 문화 개념은 물질이나 기술의 차원, 또는 기교나 세련됨에서는 못 미치더라도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해는 여러 인간집단의 정신적 성취와 가치는 그 자체로서 이해해야 하며 선진국의 척도로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됨
- 물질적, 기술적, 제도적으로 뒤떨어진 민족이 정신적으로는 더 고상한 문화를 가질 수 있다면, 물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유럽인들이 ‘야만’ 또는 ‘미개 부족’ 이라 칭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문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됨
- 그리하여 19세기 말 인류학자 타일러 (E. Tylor)가 문화를 정의할 때 물질적, 기술적 발전의 정도는 문제시하지 않았고,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그 외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잡한 총체” 라고 문화를 정의함(Tylor 1871)

제4장 교과 영역

- 이와 같이, 문화라는 개념은 근대 유럽 내에서도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하는 후진국 독일의 독립과 자존심, 민족통일 및 국민국가 건설의 정신적 토대로 발전한 것이며, 이후 서구 선진국에 대한 비서구 후진국의 자존과 독립을 주장하는 이론적 논의의 핵심 개념으로 발전하게 됨

□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의 등장

- 서구 진화주의자들은 16세기 이후 소위 지리상의 ‘발견’으로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수많은 인간 집단들을 몇 가지 공통의 척도에 의거하여 보편적인 문명 발전의 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배치하였음
- 서구의 기준에 따라 과학과 이성의 진화단계의 정점에 유럽이 놓였고, 단순 소규모 사회 혹은 비서구는 미개에서 전통단계를 거쳐 유럽의 경지에 오르는 수직적 발전단계에 놓이고 평가되었음
- 그러나 인류학 내에서 문화의 개념과 그에 대한 현상적 인식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 진화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각 사회 집단은 서로 우열을 비교할 수 없는 각기 독특한 가치에 기초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존에는 단수 대문자로 ‘문화(the Culture)’라고 쓰던 것을 복수 소문자로 ‘문화들(cultures)’이라고 상대화하여 쓰기 시작하였음
- 문화상대주의는 타문화를 접할 때 자문화의 틀을 내려놓고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해당 문화를 관찰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인류학의 방법론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개념임
- 즉, 문화상대주의는 인종주의와 사회 진화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배에 의해 토착민의 삶이 파괴되고 이들의 사회와 문화가 대량으로 소멸되는 시기에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등장한 것으로서, 문화를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화 이해의 방법을 강조하는 것임
- 그 반대 개념은 자기 문화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평가하거나, 그러한 판단 하에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임

제4장 교과 영역

- 문화상대주의가 가치와 도덕에 대한 상대주의, 즉 어떤 문화가 가진 특성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모두 포용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문화상대주의를 도덕의 부재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문화인류학적 문화 개념의 발전

- 각 집단의 문화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상대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분과인 인류학은 학문 내적으로 초기의 진화주의적, 전파론적, 그리고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이 수반하는 현실 호도에 대해 자성적 비판을 던지며 끊임없는 절차탁마의 과정 속에서 현실 설명이 가능한 개념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발전시켜왔음
- 초기의 진화주의 인류학이 진화론적 단계의 수직선을 제시하고 비서구 단순 사회들을 수직선의 아래 부분에 줄 세우는 데에 반발하며 등장했던 전파주의자들은 문화특질들의 전파 양상에 관심을 둬으로써 문화 간 교류와 접촉에 주목하였지만, 문화의 내적 통합이나 지속되는 패턴은 보지 못했음
- 이와 같은 진화주의와 전파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근대 인류학이 등장하였음
 - 미국에서는 미국 원주민, 즉 인디언들의 문화가 서로 많은 문화특질들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나름대로의 통합을 이루면서 상이한 패턴이나 형상(configuration)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의 경계는 그리 단순하거나 명료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층적이며(multiple) 서로 겹쳐져 있고(overlapping) 상호 침투(permeating)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시각이 등장하였음
 - 한편 당대의 영국 사회인류학은 사회나 문화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문화적 행위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음. 특히 기능주의와 구조기능주의로 불리는 학파에서는 사회와 문화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기능적으로 연관을 맺으면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음

제4장 교과 영역

- 이와 같이 대서양 양쪽에서 진행된 근대의 고전적 인류학은 소규모 단순사회 및 비서구 사회의 ‘유럽과 다른’ 문화 양상에 대해 ‘미개’ 라는 딱지를 떼고 각각의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를 연구하고자 함으로써 ‘문명’ 과 혼동되지 않고 등급이 매겨지기보다 다름을 인정되는 개념으로서의 문화를 인식하게 하였음
 - 그러나 이들은 문화와 사회 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사회 내에 다양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경쟁적인 문화적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회와 문화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본질적인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음
 - 이후의 학자들은 특히 식민주의 상황에서 그와 같이 문화의 내적 통일성에 집중하고 문화 간에 단단한 경계를 설정하는 논의는 문화 간 충돌과 갈등을 외면하게 하고 현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음
 - 현대 인류학자들은 인접한 사회집단들 간 공유하는 요소가 많으며, 때로는 그러한 사회나 문화의 특징들이 장기간에 걸친 교류와 접촉의 결과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
 - 또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과 문화의 교류 및 모방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지적하였음
 - 문화는 잘 짜여진 패턴이기도 하고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의미를 부여하며 통합된 정체성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 외부와 내부, 혹은 자(自)와 타(他)의 소통 속에서 새로이 변환하며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음이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 현대인류학은 개별 집단에 속한 성원들이 내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사회의 문화는 자체적으로 끊임없는 경쟁과 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해간다고 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에서 정의하는 문화 개념
-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및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에서 제시된 문화 개념은 인류학이 정의하는 이상과 같은 문화의 개념을 따르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이 인류학이 설정하는 광의의 문화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상당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한편, 유네스코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 개념은 현대 인류학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고전적 인류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일집단 일문화’의 가정(즉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문화 개념을 따르고 있음
 - 그 결과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협약은 개인의 권리보다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공통된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은 서문에서 문화를 “예술이나 문학 뿐 아니라 생활방식, 가치체계, 전통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징의 총체” 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에서도 문화가 시간,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다양성이 민족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함과 복수성에 새겨진다고 말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견지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제4조 1항은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 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고 천명하고 있음
- 동아시아 질서와 역사 내에서의 문화
- 동아시아의 전통사회에서 사용된 문화라는 용어는 ‘人文教化(인문교화)’ 또는 ‘文治教化(문치교화)’ 라는 표현을 줄인 것이었는데, 이때 文治(문치)는 武治(무치)와 구분되는 것이었고, 教化(교화)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음(西川長夫 저, 한경구 역 2006)

제4장 교과 영역

- 조선의 경우에도, 임금의 명령은 교(敎)라고 지칭되며, 임금은 도덕적으로도 우월한 존재로서 백성을 교화할 것이 기대되었음. 즉, 교화의 줄임말로써 문화에는 이미 올바른 방향이라는 도덕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고, 가르치는 주체와 가르침의 대상이라는 불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 문화라는 용어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culture를 문화로, civilization을 문명이라 번역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문명(civilize의 명사형)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국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스스로 문명화 작업의 주체를 자임하며 자국민과 주변 국가들을 문명화 작업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압도적인 선진 문명을 가진 서구에 대해서는 일본 문화의 특수한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요구하였음
- 제국주의 침략과 냉전을 겪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국가가 이상화된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근대 서구에 비해 ‘사회’가 ‘국가’에 비해 약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의 역사적 경험은 동아시아인들로 하여금 더욱 더 강한 국가를 바라게 만들었음
- 그리고 동아시아가 근대에 들어와 국민국가를 단위로 단결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 내의 여러 지방이나 소수민족은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급속히 국민으로 통합되었음
- 국민국가가 문화의 유일한 단위가 아님에도 통상 문화의 단위로 지칭되는 것이 동아시아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님. 그러나 이상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국민국가주의(nationalism)는 특히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고착되어오며, 다음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가를 문화의 단위로 상정하는 사고틀을 빈번히 노정하고 있음

(2) 문화 개념의 다양한 의미와 용례에서 발견되는 문제들

□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 이상의 문화 개념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가정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은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임

제4장 교과 영역

- 현재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문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와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음
 - 나아가 현대의 문화 개념은 문화가 내적으로 통합되어 일관되고 뚜렷한 체계 또는 구조를 가지며, 한 개인은 하나의 문화에 속하면서 문화가 그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가정은 문화의 단위를 민족 집단(ethnic group) 또는 국민국가라고 전제하면서 하나의 민족 집단은 하나의 문화를 갖는다는 가정과도 상통하는데, 이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다수의 문화를 갖거나 다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노정함
 - 민족의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 논란이 많은 혈통 대신 문화를 근거로 함으로써, 이러한 가정은 민족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국민국가를 있게 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였으며 근현대를 가히 국민국가와 민족주의 시대라 칭할 수 있게 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나아가 그러한 문화 개념의 바탕 위에 국민국가의 내적 통합이 강화되고 국가 간 차이가 강조되면서, 이른바 ‘일집단·일문화주의’가 더욱 강화되어 왔음. 유네스코 다양성 협약과 선언도 기본적으로는 일집단 일문화주의적인 문화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 따라서 집단 내 개인들이 상이한 문화를 표출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함
 - 그리하여 집단 내부의 역학관계나 문화요소 간 경쟁과 갈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하나의 집단이 동질적 문화집단이라는 가정 하에 문화 내적 다양성 보다는 문화 간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음
- 국민국가가 문화의 단위라는 가정: 정치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의 동일시 문제
- 국민국가는 국민문화 개념을 도입하여 영토 내 국민으로 묶이는 이들 간의 결속을 도모하고 국가적 통합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서의 국민을 형성함(B, Anderson 저, 윤희숙 역 2004)
 - 그러나 정치적 경계가 문화적 경계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이데올로기(Gellner 1984)일 뿐, 국가의 영토 내 하나의 민족 문화만을 내포하는 국민국가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

제4장 교과 영역

- 그뿐 아니라, 문화는 교류와 모방 등 이질적인 문화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국경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문화의 경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세계화된 현대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그것이 부여하는 문화의 정체성은 공간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고 마치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동시에 강력한 동질감을 통해 국가적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자연히 국민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민 집단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
- 국민국가를 문화의 단위로 보는 두드러진 담론으로서, 이른바 ‘국민성 연구(national character studies)’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했음
 - 국민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소규모의 사회를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과 방법론을 국민국가나 대규모 사회에 적용한 것
 - 적국인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전후에 출판되었던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그 전형적인 예임
- 국민성 연구는 단순명료하고 소위 화학적으로 순수한(chemically pure) 설명으로 인해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몇몇 단어로 단순화, 일반화시키고 이와 잘 맞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거나 예외로 치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총체적 현실(the whole truth)을 진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여겨짐
 -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무형문화유산 협약에도 내포되어 있음이 발견됨. 문화 또는 문화유산의 주체가 국민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국민국가로 설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 그 결과, 지역 공동체나 사회 집단이 아니라 국민국가만이 문화의 단위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문화적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는 입지는 매우 약함

제4장 교과 영역

- 이러한 인식은 또 한편으로는 국민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거나 국민국가 내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존중되지 못하고, 인정이 될 경우에도 항상 어느 특정 국가의 문화의 일부로서만 인정된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전통문화나 민족문화의 보호와 발전과 관련된 논의 또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을 의미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지배를 의미할 수 있음

□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의 문제와 한계

- 인종과 민족 개념 중심으로 공동체를 논하는 것이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대신 ‘공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전통을 중심으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문화민족주의가 등장함
- 문화민족주의는 통합되고 공유된 국민문화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문화의 역사성과 독자성, 우수성을 강조함
- 이는 혈통민족주의와 비교할 때 훨씬 진전되고 개방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확신이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지 않고, 문화를 통해 민족의 근본적 우월성이나 특이성을 강조할 경우 혈연민족주의와 비슷한 문제와 한계를 노정하게 됨
- 이러한 문화민족주의적 사고는 세계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사업에서도 드러남
 - 이들 사업의 기본 취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유네스코가 세계 기구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국가들의 자긍심과 자원에 의존하여 활동하는 현실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국가 간 경쟁이 나타나게 되었음
 - 개별 문화유산은 특정 국민국가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원과 교류의 결과물인 인류 보편의 공동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이나 무형문화유산의 지정은 이들을 배타적으로 특정 국가나 민족의 산물인 것으로 지정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 인류 문화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을 의도치 않게 강화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 또한 문화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3)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

- 문화는 여러 다양한 주제나 요소들의 대결과 경쟁, 갈등과 타협, 설득과 강제의 장(場)으로 이해됨
- 사회 내 일부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세계관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 스스로는 물론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에 성공하기도 하고, 내부의 많은 모순과 경쟁, 이해관계의 대립과 투쟁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고 경합하는 문화들이 존재하나, 일시적 타협이나 해결책에 의해 우리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라고 부르는 지배문화만이 전면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따라서 집단 간, 문화 간 다양성 뿐 아니라 집단이나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주목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양성의 지속을 보장하고 그 발전과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4) 글로벌화, 탈영토화와 국제이주

-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는 집단 간 다양성 뿐 아니라 집단의 내적 다양성을 동시에 수반함
- 그러나 그와 같은 문화다양성 이해에 대한 동의가 수립되기 전에는 종종 집단 외적 자극과 교류에 의해서 주로 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된다고 여겨졌고, 이는 20세기 후반의 글로벌화와 국제이주에 의해 더욱 가시화되고 그 인식이 심화되었음
- 한편으로는 문화다양성을 가속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글로벌화와 국제이주에 대해 분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음
- 글로벌화(globalization)
 - 글로벌화(혹은 세계화, 전지구화)는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사람, 자본, 기술, 상품, 사상의 교류를 이끌어내는 현상을 지칭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는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시장경제의 주도 하에 문화다양성에 불리한 방식으로 초국화, 표준화 및 간소화를 불러온다고 여겨지기도 함

제4장 교과 영역

- 특히 세계로 확산되는 소비재 및 서비스가 각 지역의 문화적 창조물과 관습에 위협을 가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많은 이들은 세계화가 암암리에 문화적 동질화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들 간에 문화이동은 일방적, 일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고 항상 번역과 변이, 변안이 수반됨
-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의 문화교역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쌍방향 과정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음
- 따라서 오히려 이전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외된 집단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구를 제시하는 데에 글로벌화된 미디어가 점점 더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원되고 있음
- 즉, 글로벌화는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경제, 사회, 정치, 기술, 문화적 영역에서 동시에 전개되며, 이러한 영역들 각각의 내부에서 그리고 영역들 사이에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면서도 급속하게 발전하는 연결 네트워크이자 상호의존 네트워크로 이해해야 할 것임

□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 탈영토화는 문화적 사건 및 경험과 지리적 위치 사이의 전통적인 연관성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세계화가 가져온 효과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즉, 글로벌화는 먼 곳의 사건과 경험, 영향들을 시청각 미디어를 통해 옮겨오고, 국제이주의 흐름에 따라 다른 문화적 전통과 다른 영토로 사람들을 옮겨감
- 문화적 경험과 지리적 위치 간의 연관성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영향과 경험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임
 - 예를 들어 디지털 문화는 특히 청년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탈영토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시민주의의 태도가 디지털 기술이 확보된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역 연결성의 약화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확실성을 잃거나 주변화의 원천을 제공하며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함

제4장 교과 영역

□ 혼성화(creolization, hybridization)

- 혼성화는 카리브 해 연안 등 다양한 집단이 공존해온 특정 지역에서 발원한 개념이지만, 현재에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크레올(Creole)은 아프리카 출신의 후손을 일컫던 말임. 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어느 쪽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됨
 - 이러한 크레올의 경험은 이후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만나 혼종적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를 형성하게 됨
- 문화사학자인 피터 버크(피터 버크 저, 강상우 역 2012[2009])는 “모든 혁신은 일종의 적응(adaptation)”이며 “문화적 만남이 창의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음
- 즉, 문화의 섞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이 시대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보다 다른 문화 간 어울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전망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혼성화의 현상이 전통적으로 다민족, 다인종 국가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은 단일 민족국가의 문화의 내부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한 혼종성이 놀라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5) 다문화 개념의 비판적 점검

- 특히 다양한 형태의 국제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닌 다른 인종, 민족, 문화집단의 공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문화 간 교류와 공존을 이해하려는 여러 개념이 등장했음
- 기본 개념의 검토
 -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문화 동화(cultural assimil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간문화주의(interculturalism) 등을 들 수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표 4-1〉 다문화 개념과 연관된 기본 개념

개 념	의 미
문화적 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	지배 문화의 존재를 상정하고 여러 집단이 그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했던 현상을 지칭
문화 동화 (cultural assimilation)	지배집단의 문화와 동일해지고 흡수되는 현상. 소수집단의 시각에서는 문화 탈락을 의미하기도 함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한 사회 내에 복수의 문화가 동등한 관계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소수 문화를 보호하려는 이념
간문화주의 (interculturalism)	상이한 민족 집단과 문화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이해, 존중과 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지향함

①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 문화다원주의는 지배 문화의 존재를 상정하고 여러 집단이 그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현상을 지칭함
 - 이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과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20세기 초 미국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등장했는데,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문화 속에서도 다른 집단의 문화가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함
 - 당시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었는데, 문화적 다원주의는 미국사회에서 강조하던 동화모델과 관련이 있음
 -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나 프랑스로 대표되는 통합주의의 기본 태도는, 공적 영역에서는 정착 사회(host society)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야 하며, 고유의 문화는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임
 - 그러나 사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가 그다지 명확하거나 용이하지는 않아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서도 문화다원주의를 언급하였는데, 협약은 그를 문화다양성을 실현할 긍정적인 수단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협약에서 사용된 문화다원주의는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실제 특정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현되었던 문화다원주의가 아니라, 이상적(ideal) 이념으로서의 문화다원주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
 - 현실적 용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됨으로써 협약의 용어 사용은 많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기존에 국내에서 발간된 일부 연구에서는 이 개념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판적 점검이 요구됨

② 문화 동화(cultural assimilation)

- 동화는 지배집단의 문화와 동일해지고 흡수되는 현상으로, 이민자 집단 또는 소수집단의 시각에서는 문화 탈락(deculturation)을 의미하기도 함(한경구, 한건수 2011)
- 미국은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이주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미국 사회나 문화에 대한 적응이나 동화는 자발적이며 당연한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러나 이주민이 정착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착 사회의 지식과 정보를 체득하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동화는 그 맥락에 따라 반드시 차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음
- 동화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전근대적이라는 사고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③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 이주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등에서는 동화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1970년대에 처음 공식화되어 출발한 것으로, 한 사회 내에 복수의 문화가 동등한 관계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소수 문화를 보호하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킴리카(Kymlicka 1995) 등 다문화주의 논의를 발전시킨 이들은 자유주의 국가가 그 내부의 종족적 다양성(ethnic diversity)의 존재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선의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다수자들의 문화를 통한 국민통합의 노력이 소수자에 대한 불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였음
 -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다문화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게 되는 집단들에 대해 ‘집단 차별적 권리(group-differentiated rights)’ 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문화주의적 시민권을 주장한 킴리카(Kymlicka 1995)는 국민국가 내부의 다양한 집단의 존재 양태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소수자 권리를 고려한 시민권의 재편이 중요하다고 봄
 - 북미의 사례를 통해, 킴리카는 국민국가 성립 이전부터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던 토착민과 국민국가 성립 이후 진입한 이주민의 경우 서로 차별적인 권리를 요구한다고 봄
 - 즉, 토착민은 주류 문화와 병행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집단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자율과 자치권을 요구하는 반면, 이주민의 경우에는 자치권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전체 사회로 통합되어 가는 상태에서 주류 사회의 법과 제도가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원하는 식으로 권리의 요구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임
 - 킴리카는 이와 같은 집단 간 차별성을 고려한 권리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다문화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현실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와 호주 같은 주요 이민 수용국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 의해 발전된 것임
 - 캐나다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 주민들을 포함한 프랑스어 사용 주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직자 이외에는 이주를 철저히 금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프랑스어 사용 주민 문제와 이민 문제로 인해 다문화주의가 등장했음

제4장 교과 영역

- 호주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백호주의 및 호주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민 문제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서 등장하였음
- 캐나다와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이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캐나다와 호주는 모두 국경 관리와 통제가 용이한 국가들로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바람직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이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
- 다문화주의의 규범들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허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이민을 희망했으나 기회를 거부당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경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들 국가와 동일한 규범과 정책의 적용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④ 간문화주의(interculturalism)

- 번역자에 따라 interculturalism은 상호문화주의, 혹은 문화간 상호교류주의로 번역되기도 함
- 간문화주의는 상이한 민족 집단과 문화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이해, 존중과 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지향함
- 기본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함. 집단이나 문화보다 개인에 주안점을 두고, 다문화주의의 본질주의(essentialism)에 대해 비판적이나, 문화를 핑계로 특별한 대우나 관용을 요구하거나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이상의 용어와 개념들은 기존의 다문화주의를 정적인 모델로 이해한 학자들이 문화 간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함
- 그러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도식적 개념 이해를 조장하고 때로는 혼란마저 초래하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어, 본 지침서에서는 상기 용어와 개념들을 강조하지 않을 것임

제4장 교과 영역

□ 다문화주의 현황과 문제점

－ 다문화주의의 가정이 드러내는 문제점

- 다문화주의 교육의 문제점은 앞 장 제3절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개념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단위가 하나의 사회 내지는 사회집단이고, 하나의 사회나 집단은 오직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고 있음
- 즉, 다문화주의 담론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의 단위나 주체는 국민 국가이며, 이민자들은 출신 국가 국민의 일부로서 그 국가의 문화를 담지한 것으로 간주될 뿐 이민자 집단 내부의 다양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개인은 오직 하나의 사회나 집단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다수의 정체성, 또는 중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음
- 문화적 경계를 강고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실제로 분리주의를 조장하거나 문화적 계토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때로는 소수집단 내부의 독재를 예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한국의 ‘다문화’ 용어 사용 점검

-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가진 여러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마치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며 선진적인 것, 진보적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에서 ‘다문화’ 용어는 한국사회가 2000년대 들어 이주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등장하였으며, 그 전개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기본 성격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거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그러나 ‘다문화사회’가 학자마다 제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예를 들어 다문화사회는 다민족적 공존이 일상화된 사회를 지칭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있는 사회로서의 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의 한국을 희망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함

제4장 교과 영역

- 더욱이 한국정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 종합지원대책을 계기로 소위 ‘다문화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정책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에 집중되었음
- 그러나 다문화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 부족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화정책에 가까운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학계와 시민사회 모두의 비판을 받게 되었음
- 한국인이 우월한 입장에서 시혜를 베푸는 온정주의적 정책과 홍보가 다문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상을 심어주어 그 정책 대상의 정체성과 입장에 낙인을 찍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6) 문화다양성

□ 생물다양성 개념으로부터의 유추

- 문화다양성 개념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강조되었음
 - 사회진화주의가 주도적이던 시기에는 개체나 종의 소멸이 자연적인 질서의 일부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이나 문화의 소멸 역시 문제시되지 않았음
 - 심지어 빈민구제나 장애인 보호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나, 원주민과 그 문화에 대한 배려는 생존경쟁에서 도태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인류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었음
-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진 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의 보존 개념 또한 다소 뒤늦게 등장했음
 - 즉,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수탈, 국민국가의 건설과 국민 통합, 그리고 근대화와 경제발전 노력의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와 민족이 생존을 위협받게 되면서 비로소 등장하게 된 것임

제4장 교과 영역

- 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생존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전체적인 다양성의 유지가 강조되었음
- 문화다양성은 이러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추한 것으로서 생존은 물론 창의성의 발현과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문화다양성은 단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고 바람직함
 - 다만 문화다양성 보호의 기본 취기와 의의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음.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2013)는 문화다양성 개념을 논함에 있어, 문화 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전통 등에 주목하기 보다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문화다양성에 치중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그런데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이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고, 국민국가의 정부가 자국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산업 등이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문화’도 시장 개방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음

□ 문화 간 다양성과 문화 내적 다양성

- 문화다양성은 흔히 각기 이질적이고 고유한 문화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즉,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다양성으로 이해되는 것임
-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집단이 가진 문화 내에 존재하는 문화 내적 다양성임. 다시 말해, 문화다양성은 ‘문화 내 다양성’이기도 함
- 현대 한국사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문화 내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자신의 삶의 방식만이 유일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인류학적 사고방식은, 타자의 방식 혹은 타문화의 존재는 대안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지시함

제4장 교과 영역

- 문화다양성 논의에서 주목하는 다양성의 보존과 증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과 실천의 보존과 발전을 지칭하기 보다는 다양성 자체에 초점을 둬
- 즉, 기존의 모든 사회 집단이 가지는 관습과 가치, 그리고 특히 여성할례 등과 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는 특정한 문화적 실천이나 전통 등을 문화다양성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옹호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표는 창의성의 확대, 즉 문화소수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문화의 자유로운 표현과 보호를 통해 긍정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창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 다만 문화다양성이 반드시 아름다움 것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관계 설정이 중요함
-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개별 문화를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모든 문화는 불완전하며 내부적으로 모순과 갈등을 겪고 있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특정한 문화적 관행이란 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증진은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가치와 노력으로 이해해야 함
 - 그러므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인류를 위한 것이며 또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임
 - 특정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고 복지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별 집단, 전통, 관습, 가치 등의 보존 자체가 목적이 아님
 - 그러므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 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제4장 교과 영역

- 또한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감수성이나 취향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것임을 인식한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실제 당혹감, 분노, 고통 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관련한 고민과 대책도 문화다양성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함

□ 문화 간 다양성(문화의 외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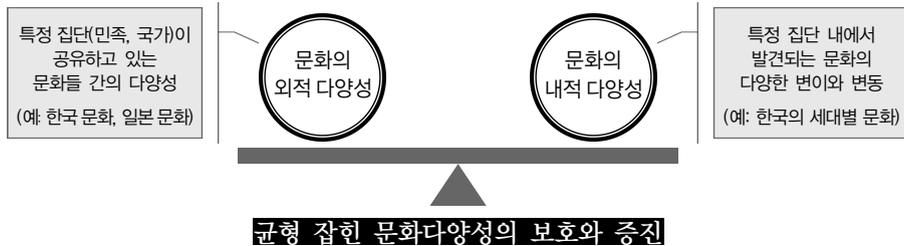
- 문화 간 다양성과 문화의 내적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기존의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접하고 있는 국제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은 문화 간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유네스코에서 주창한 국제이해교육, 글로벌시민교육, 외국인과의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또한 고등학교의 사회문화 교과목과, 대학의 문화인류학 외에 세계사, 세계지리, 외국 문학과 외국어 관련 교과목 등도 문화 간 다양성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문화 간 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자칫 문화의 내적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문화의 내적 동질성을 당연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 내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의 내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기존의 문화다양성, 다문화, 국제이해 관련 교육 대부분이 문화의 외적 다양성(문화 간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조차도 집단의 성원으로서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내적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한국은 식민통치와 분단 등과 같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단일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강조해온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임

제4장 교과 영역

〈그림 4-2〉 문화의 외적 다양성과 내적 다양성



- 또한 사회가 위기라는 인식으로 인해 다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창의적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보다, 차이를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일사 불란한 정치적 단결과 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단결과 통합의 과잉에서 비롯된 문화의 내적 다양성 위축은 마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문화 내적 다양성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창의적 발전과 변화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
 - 일본의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일본 문화 만들기’ 시도가 일본 문화의 빈곤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맹목적인 한국 문화 예찬론은 지양하고 우리사회 문화의 내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한국 문화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발견하고 존중하며 발전시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세계를 발견하려는 시도’ 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세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는 시도’ 이기도 함. 이러한 노력은 문화적 타자를 이해하고 문화적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임

제4장 교과 영역

2. 문화다양성 관련 유네스코 선언 및 협약과 국내 법규

- 이 장에서는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의 선언 및 협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고, (2) 한국의 문화다양성 관련 기본법 및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점검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 그리고 법률이 제시하는 이념과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밝힐 것임
- 그를 통해 현재 학교나 박물관,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 기반시설 또는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적절한가를 비판적으로 가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선언 및 협약의 체결

-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됨
 - 1980년대 이래 점차 시장의 절대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무역 협정이 범람함에 따라 문화산업에 대한 위협이 극적으로 증가되었고, 국가는 문화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나 실질적으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변화 되는 위협을 감수하기에 이룸
 - 미국과 서유럽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개진되고 각 입장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이 채택됨
 - 소위 당대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이 선별적 이민정책과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되면서 본질적인 종의 다양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됨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던 1986년에서 1993년 사이에 문화와 무역 간의 갈등이 다자간 통상 협정에 부상하기 시작, 무역협정을 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에 대해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성(exception culturelle)’ 또는 ‘프랑스적 예외성(exception française)’ 개념을 내세워 문화를 다른 문화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함 (박병도, 김병준 2009, 류정아 2014)

제4장 교과 영역

- 2001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을 통해 문화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위에서 정리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증진되는 관심의 연장선에서 유네스코는 2001년 10월 열린 제31회 정기총회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여,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을 발표하였음
 -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1992)’ 에 이은 이 선언을 통해 문화 획일화의 위협에 대응하는 문화다양성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됨
 -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존엄성 존중 및 소수집단과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의 보호,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유산 보존,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인정,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공협력 등임
- 이어서 유네스코는 2005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을 채택함으로써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제시한 의제를 더욱 구체화시킴
 - 프랑스를 위시한 8개 국가(프랑스, 캐나다, 독일, 멕시코, 세네갈, 모로코, 모나코, 그리스)는 2003년 3월 제16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문화협약 추진’ 의제를 발의함
 - 이것이 유네스코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어 10월 제32차 총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 을 만들 것을 결정하게 이룸
 - 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3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154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48개국의 찬성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줄여서 ‘문화다양성 협약’ 이 채택됨

제4장 교과 영역

(2)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의 내용과 의미

□ 문화다양성 선언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 선언은 서문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세계화 과정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자 문화 및 문명 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 하고 있다고 봄
- 즉, 세계화 과정이 문화정체성의 표현과 창조성의 범위를 넓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약자의 문화를 소외 혹은 약화시키고 이의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선언에 나타나 있는 문화 개념

- 선언에 나타난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집단의 생활양식이라는 전통 인류학의 문화 개념을 따르고 있음
 - 즉, 선언은 서문에서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독특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고 밝힘
 - 이러한 문화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으며, 인간의 문화와 교육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자유, 정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이와 같이 선언에 드러난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이전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창조성을 강조하는 문화다원주의의 개념을 포용하고 있음
- ‘제 2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다원주의로’ 에 따르면,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체제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문화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고 밝히고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 협약의 구성
 - 문화다양성 협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의 특정한 부분, 즉 8조에서 11조까지를 다루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협약은 전문, 제1장 목적과 조항 지침, 제2장 적용범위, 제3장 정의, 제4장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제5장 타 협정과의 관계, 제6장 협약의 기관, 제7장 최종조항으로 구성되며, 총 35개 조문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 협약의 목적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은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제논리로 부터 각국의 고유한 문화주권,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문화도 자유무역의 중요한 거래 대상으로 지정된 데 대해,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담론은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논리로 부각된 것
 - 문화다양성 협약의 배경과 취지를 보면 문화다양성이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고,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는 근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라는 점을 정의하고 있음
 - 즉,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개인과 사회의 풍요한 자산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과 유지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 라는 사실 강조
 - 전문에서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고 적고 있음
 - 또한 협약은 문화적 창의성이 인류 모두에게 있으며, 창의적 다양성은 경제적 이득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생각 하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둠
 - 이에 따라, 자국의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을 채택할 국가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약일 것을 지향함
- 협약의 내용
- 협약은 기본적으로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걸쳐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고 규정함

제4장 교과 영역

- 문화다양성이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문화다양성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공동체와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을 천명함
 - 문화다양성은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속에서 번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생각의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다양성은 육성될 수 있음
 -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재확인함
 -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함
 -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전통지식이 기여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함
 - 각 회원국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각 회원국이 국내의 문화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의무 조항 설정: 취약한 개인 및 집단들 및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를 할 의무, 시민단체의 역할을 인정할 의무, 문화를 개발정책의 한 요소로 인정하고 구체화할 의무를 강조함
 - 위의 조항들에 의해 허용된 문화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그에 대해 보고하며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명시함
 - 각 회원국이 타국의 문화교류 및 문화개발에 기여해야하는 국제적 의무 규정
 - 문화다양성 협약을 운영할 조직 및 기구들 규정
 - 문화다양성 협약과 기존 국제조약관의 관계 천명
- 협약의 의미
- 문화적 표현은 활동, 재화(goods) 및 용역(services)에 의해 전달되며, 경제적 결과 뿐 아니라 문화적 결과를 가져오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므로 순수한 교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천명함

제4장 교과 영역

- 즉, 협약은 문화상품 및 문화용역이 정체성과 맺는 관계에 주목하며 그 가치와 의미는 경제적 재화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문화다양성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적 협약으로서, 전 세계의 예술가, 문화전문가, 실천가,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문화적 재화, 용역, 활동을 창조하고 생산하며 보급하고 향유할 것을 보장함
- 한국도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제적 의무 발생하여,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를 4년에 한번 제출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다양성 법규를 제정함
- 협약의 당사국들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 를 가진다고 하며 또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함

(3) 한국의 문화다양성 관련 법규

□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발효 및 관련 법률 제정의 배경과 과정

－ 한국 다문화정책 및 소수자 정책의 한계

- 한국에서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나아가 다양한 이주자에 대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었음
-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정책의 성격을 가지며 적응을 지원하는 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 또한 이주자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다양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여성, 소수자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짐
- 즉, 기존의 여성 및 소수자 정책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축소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문화다양성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권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더 나아가 모두가 자신 및 자신과 다른 이들의 문화를 긍정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특히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목소리들이 등장함

제4장 교과 영역

-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
 - 한국은 2010년 4월 1일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서를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고 2010년 7월 협약이 정식 발효됨
 - 이에 따라 국내에서 협약을 이행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의 마련이 추진됨. 2011년 문화와 발전 의제를 ‘세계화와 상호의존’에 관한 주요 결의안으로 채택함
- 문화기본법의 제정
 - 이상과 같이 국내외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문화현장’이 제정됨
 - ‘문화기본법’은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제정된 ‘문화현장’에 천명된 문화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됨
 - 문화기본법은 문화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문화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둬
-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14년 5월 28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19일 시행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한 문화의 개념과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기본법에서 정한 문화 정책 수립, 시행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유관기관이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할 것을 규정함
 - 이러한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과 교육 실행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
- ‘문화기본법’의 내용
 - 국제사회에서 ‘문화권’이 기본권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문화적 권리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음

제4장 교과 영역

- 이에 ‘문화기본법’은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기 위해 법제화됨
 -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집단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임을 공고히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제2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참여·향유할 권리를 문화권이라 정의함(제4조)
 - 동법은 문화예술 창작자나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의 초점을 ‘국민’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김휘정 2014)
 - 즉,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적 표현과 향유의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정책으로 그 초점을 전환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의 구성과 내용
- 문화다양성법은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목적(1조), 문화다양성의 정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6조),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7조), 위원회(7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8조), 연차보고(9조), 국가보고서 작성(10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12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11조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날을 매년 5월 21일로 정하도록 하고, 13조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 문화다양성법은 제1조에서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며, 그 목적을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데 둠
 - 동법은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제2조)이라고 정의함
 - 즉,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단지 예술창작 및 향유를 위한 문화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상적 삶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고, 단순히 기존의 내집단 밖에서 비롯되는 다양성 뿐 아니라 집단 내의 여러 층위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문화 창조성을 증진하는 뜻을 담아내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문화다양성법 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4) 문화다양성 협약과 법규에 드러난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

□ 교육대상

- 문화다양성 협약과 법규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창조하는 주체를 특정 국가 구성원이나 집단 내부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함
-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 또한 사회 소수자나 이주민 혹은 그들의 자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함
- 문화다양성 교육은 사회적 다수자 혹은 주류자 중심의 동일성과 단일성에 기초한 동화주의를 거부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살아 숨 쉬는 역동적 공동체를 형성해가기를 추구함

□ 교육기초

- 이전의 왜곡된 다문화교육이 사회문화적, 언어적 다수자 혹은 주류집단이 소수자들을 원조하고 배려하는 수직적 권력관계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문화다양성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종교 등의 맥락에 따른 유동적이고 혼성적인 자아정체성에 기반을 두며,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수평적 인간관계와 권력관계를 강조
- 다수자와 소수자들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함

□ 실현방식

-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계에 주목하여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적 차이의 장점과 그 편재성을 이해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시적 교육 방식은 거시적 관점의 틀에 박힌 교육 프로그램과 일회성 교육 행사를 강조하는 실현방식과 문화 및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3. 현대 한국인과 문화다양성

(1) 글로벌 시대가 한국사회에 가져다준 충격

- 자본과 시장의 세계적 유동성에 따른 경제 행위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본, 사람, 노동이 지구적 차원에서 용이하게 이동하고 있음
 - 글로벌화한 시대적 상황에서 삶의 장소는 전에 없이 확장되어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토양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형성됨
 - 수출 중심의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한국사회는 급격히 글로벌 환경을 맞이하게 됨
 - 일본, 미국 중심의 시장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이슬람,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시장과 생산 거점이 다변화됨
 -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한국의 세계 진출 증가와 동시에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노동인구가 한국으로 유입됨
 - 인구구조의 문제로 한국에서 결혼 이주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유학생 확대정책으로 세계 각지의 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음
 - Grand Metropolis 서울의 국제성: 반포의 서래마을, 인천의 차이나타운,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의 조선족 타운, 안산 외국인 타운,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거주지 등
-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문화적 접촉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치적으로는 탈냉전에 따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지고 사회적으로는 탈산업사회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역사적 체험을 지닌 노동인구가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 같은 생활공간에서 접촉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노동인구가 국제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전문지식인, 과학자, 전문경영인 및 테크노크라트의 탈국적화 현상이 증가함
 - 정보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됨

제4장 교과 영역

- 기업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의 탈국적화가 이루어짐
-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에 의한 혼종 현상이 증가함
- 국가 내부에서도 다양한 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의 증가 및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과 지역 사이의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와 연결망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시대는 자본과 노동,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내재하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사회가 서로 다른 성질의 급격한 변화들을 한꺼번에 수용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체험을 지닌 사람들이 경제적 동기로 동일한 공간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 현상이 발생함
 -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이 잔재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다른 사회의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고 확산되며, 또한 사회 내에서 기존 문화들이 빠르게 분화하고 변이됨에 따라 새로운 문화의 수용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 및 그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경제적 동기의 생활이 중시되면서 인간의 삶과 문화적 행위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하게 됨
 - 노동의 국제화, 다양화, 분업화로 인해 노동계 내부에 출신, 능력, 인종 등의 요인으로 인한 직업의 계층적 차별성이 발생함
 - 한국사회에서는 직업의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기 쉬움
 - 그러나 인종, 성별, 계급, 지역, 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이질성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글로벌 시대에도 문명화, 경제발전의 중점을 둔 근대적 가치는 여전히 우세함

제4장 교과 영역

(2) 문화다양성 교육의 시대적 요청

□ 문화다양성 교육의 시대적 요청

-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글로벌화로 인해 개인의 삶의 양식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의 담지자인 개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원리가 요청됨
- 인간의 삶은 경제 영역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행위를 비롯하여 사회적 행동과 문화적 실천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과 교육이 요청됨
 - 급속도로 진행된 글로벌화 과정에서 경제구조의 변화는 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됨
 - 경제행위는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삶의 한 가지 양식이며 경제행위의 배후에 존재하는 인간의 총체적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변화된 세계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의 집합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모색과 대응 노력은 여전히 부족함
 - 글로벌화는 동일화와 혼종현상을 초래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종, 성별, 계급, 지역 등의 차별성이 강조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님
 - 동일화와 차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차원에서 충돌과 갈등이 야기됨
 - 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세계에 대한 표상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착종된 근대사의 파고 속에서 민족부흥을 외치면서 이질적인 것, 타자에 대한 표상 능력이 제한적임

(3)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동아시아의 근대 경험에 대한 검토

- 한국은 서양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로 근대적 국가로 변신하면서 세계사의 무대에 진입하였으며, 21세기 현재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선두 그룹에 진입해 있음
- 한편으로는 험난한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세계사적 차원의 문제, 동아시아 지역이 공유하는 전통과 근대화 과정의 문제, 그리고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야기된 전통과 사상, 사회와 문화에 내재하는 문제 등을 안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현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그것의 가능성 및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서 동아시아의 근대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nationalism)의 문제 극복
 - 19세기 중엽 이래 동아시아는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서양을 학습하면서 국방근대화를 추구하였고 동시에 왕조체제에서 국민국가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근대적 국가 형태를 가지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자국의 독립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성격이 농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타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배타성이 고조되었음
 - 이 지역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현재도 강하게 잔존하여 외교적 분쟁뿐만 아니라 타 문화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근대적 국민국가의 통합을 위해 ‘국어’, ‘국사’를 형성하게 되었음
 -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각각 자국의 언어와 역사에 대해 국어/国语(guoyu)/國語(kokugo), 국사/国史(guoshi)/國史(kokushi)로 동일한 한자 표기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용어는 이웃하는 국가의 언어와 역사를 배제하고 자국의 언어와 역사만을 지칭하는 폐쇄적인 개념으로 기능함
 - 국민국가의 창출을 위해 단일체로서의 국가를 강조하고 혈통 혹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민족주의의 신화가 형성되었음
 - 일본이 단일민족의 국가가 된 것은 고대가 아니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전에 일본은 다민족국가로 해석되었음. 대일본제국의 시대는 오히려 다민족국가와 혼합민족론을 표방하고자 했음
 - 일본이 일본을 단일민족국가로 규정한 것은 전쟁 이후의 담론이었음(小熊英二 1995)
 - 중화민국의 임시대총통 쑨원은 소민족주의, 즉 한족(漢), 만주족(滿), 몽고족(蒙), 이슬람족(回), 티베트족(藏)의 오족공화론을 버리고 대민족주의를 수용하였고, 이는 현대 중국에까지 이어져 한족 이외에 여타의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대민족주의의 노선으로 정착됨

제4장 교과 영역

- 그렇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족 이외의 다른 민족이 중화민족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는 희박함(사카모토 히로코 2006)
- 현재 중국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을 정치적 외교적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음
 - 1997년 15차 당대회에서 ‘중화민족의 부흥’ 이라는 표현이 공식화되었고, 2002년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 더 강화된 표현이 나타남
 - 한족과 함께 중국 내의 55개 소수민족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민족으로 표상되면서 패권주의적 국가주의 색채가 잔존하고 있음
- 중국의 사회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은 1988년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조’ 를 주장하면서 중화민족의 구성원은 대단히 복잡한 다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인 민족 실체이며 또한 서양 열강의 압박 속에서 공동으로 저항하는 가운데 형성된 ‘자각적인 민족 실체’ 로서 다원적 통일체를 지닌 중화민족이라고 주장함
 - 페이샤오통의 다원일체 구조론은 현재 중국을 통합하는 키워드로 동원되고 있으며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음
 -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분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구려사 귀속 문제에서 중국에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 설을 제시하면서 페이샤오통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음
- 인간 행위에 관한 생물학적 설명, 인종적 설명은 이미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인종이나 혈통에 의거하여 특정 집단과 국가의 정체성을 동일한 민족으로 규정하는 혈통론적 민족주의는 글로벌화의 시대에 존립 근거를 상실함
- 중국의 56개 민족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여 ‘중화민족’ 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경험의 공유를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중화라는 한족 중심의 성격을 소수민족에게 부과하여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소수민족의 문화적 실체성을 경시할 수 있음
- 국민국가는 유일한 단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국민국가와 관련되어 협소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물론 보편적 가치는 서구기준이 아니며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해야 함

제4장 교과 영역

□ 동아시아의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적 문화론의 한계

- 동아시아 지역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의 통합을 위해 인종 혹은 혈통에 의거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문화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국민문화’를 강조하게 되었음
-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교류와 통합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영토문제 등을 둘러싼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배타적 때로는 적대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조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함
- 이와 같은 현상에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문화론적 담론이 개입되기도 함
 - 어떤 사회에서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은 자신들의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는 정체성 확립의 과정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을 생산하게 됨
 - 일반적으로 문화론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문화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행위, 제도 등을 문화를 근거로 설명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그 문화의 독자성, 우월성을 강조함
 - 동아시아 각국은 국민국가의 통합과정에서 문화적 전통을 중심으로 민족과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문화민족주의 담론을 형성하였음
 - 문화민족주의 담론은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치적 과제가 되었으며, 자국의 자긍심을 위한 교육으로 심화되어 확대 재생산되었음
- 문화민족주의는 혈통에 의거한 민족주의보다는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의 특징을 무시하고 하나의 문화로 규정하게 되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음
- 자국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인간 본성의 동일성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이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사고하지 않으면 타 문화를 배척하는 배타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음

□ 일본의 문화론적 접근의 한계

-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자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문화론적 설명이 발달하였으며 일본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일본문화론(日本文化論, 니혼분카론)이 형성되었음

제4장 교과 영역

- 일본문화론은 공통적으로 일본인, 일본사회는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속성을 지닌 것처럼 파악하는 등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일본은 일본 밖의 외부에 대한 표상을 통해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에도시대에는 중국의 유교와는 다른, 중국보다도 우수한 일본의 국학(國學, 코쿠가쿠)의 발견을 통해 일본을 설명하고자 함
 - 이러한 논의는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후진성’ 을 강조하고 중국을 멸시하는 논의로 이어짐
 - 일본이 서양을 상대하면서도 동일한 문화민족주의적 논리를 적용하면서 서양을 학습하고 나아가 서양에 대한 일본의 특수성, 우월성을 강조하는 일본문화론을 재생산함
 - 문명개화에 성공한 일본은 자신을 후진성의 아시아와는 구별되는 존재로 설정하면서 아시아를 벗어났음
 -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제국주의시대에는 탈아입구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서양의 근대성을 넘어서기 위한 일본 독자의 논리를 개발하는 ‘근대의 초극’, ‘세계사의 철학’ 등을 제시하면서 서양과는 다른 일본의 정신적, 문화적, 사상적 특징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2차대전의 패전 후에 이러한 특수주의 노선의 문제점을 각성함
 - 일본문화론은 바로 그러한 특수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스스로의 다양성을 억제하여 창의성의 발현을 자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소통과 보급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함
- 중국의 문화론적 접근의 한계
-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이후로 중국은 놀랄 만한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보여 왔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중국의 향방을 둘러싼 최근의 담론에서는 유교 사상과 유교문화의 부흥을 제기하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담론은 전통주의 혹은 문화적 내셔널리즘으로의 회귀라는 보수성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서양 근대성의 극복이라는 보편성을 제기하는 특징을 지님

제4장 교과 영역

- 유럽중심주의적 보편의 신화가 무너져가고 있는 세계의 사상적 조류 속에서 중국의 문화적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보편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임
 -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 속에서 화이론, 중화사상, 또는 중체서용론 등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에 바탕을 둬으로써 중국문화의 우수성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였음
 -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서양의 근대적 정치사상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었음. 중국에서 1910년대에 일어난 신문화운동은 유교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전반서화주의를 제창하였음
 - 중화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이즘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회주의국가임. 근대 중국의 성립과정에서 중국문화의 특수성은 표면적으로는 배제되었음
 - 1989년에 천안문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계몽사상과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논의가 우선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조가 쇠퇴하면서, 중국가치, 중국모델, 중국적 주체성 등과 같이 '중국'을 앞세우는 다양한 서사가 등장하였음. 즉, 글로벌화의 시대적 조건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교차하면서 민족주의적 담론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임
 - 중국의 민족주의는 유교문화와 결합하면서 문화적 민족주의 또는 문화적 보수주의의 경향을 띠게 됨
 - 중국의 전통적 이상인 천하주의, 천인합일 등의 문화적 지적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교문화가 부각되었고,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학 학습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공자를 숭배하고 제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음
 - 중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은 세계화를 역사의 필연적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중국문제를 세계문제와 연계시키고자 함
- 중국에서 개혁개방은 경제적 부의 상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해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불안이 존재하고 있음. 중국 당국은 심각한 중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화 전통 속의 정화를 찾아내고자 하는 문화적 전략을 택함

제4장 교과 영역

- 이는 개혁개방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 유교문화의 도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국가의 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중국은 세계화 시대에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토대로 중국문화를 새롭게 건설하는 중국문화의 현대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방식은 “세계화의 보편적 규율을 체(體)로 삼고 중국의 특색을 용(用)으로 삼는 것”이라는 일종의 서체중용(西體中用)을 제시함
 - 중국의 포스트식민주의 문화비평가는 서양의 근대성을 본토 의식을 갖춘 ‘중화성’으로 대체하고자 했고, 신좌파 진영에서는 서양식 근대화 노선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중국식의 근대화 노선을 제시함
 -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우승열패의 사회적 진화주의에 근거한 서양문명이 핵의 재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이고 윤리적 성질을 갖춘 중국문명이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규정하면서 유교 중국의 의미를 강조함
- 중국의 자본주의적 성장과 맞물려 야기된 사회적 혼란과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화자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문화자각이란 제도의 배후에 놓인 살아있는 인간 의식을 포함한 총체적인 문화에 대한 자각과 성찰을 의미함
 - 유교사상에 토대를 둔 중국문화론은 중국문화본질주의의 혹은 폐쇄적 민족주의로 경도될 빠져들 위험성을 지님
- 중국문화론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에 대한 반론으로 ‘문화자각’을 ‘문명자각’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국굴기’가 아니라 ‘문명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이는 문화자각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문화론에 내재된 폐쇄성을 문명이라는 보편의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논의하지는 경향이지만 소수파에 불과함
-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론은 유교적 토양과 거리가 먼 소수민족에게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움. 이슬람을 비롯한 타 문명권에 유교문화의 보편성에 공감을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임

제4장 교과 영역

(4)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적 조건의 분석과 성찰

□ 한국의 압축된 근대화와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

- 19세기 중엽 이래 한국의 근대국가 창출은 「독립신문」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먼저 중국의 정치적 견제와 중국문화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에서 시작되었음
-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으로 외세에 대한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 노선이 강조되고 나아가 정체성의 확보를 위해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발굴, 선양하면서 문화민족민족주의가 요청되었음
- 식민지 경험 속에서 민족적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대사의 영광, 문화적 우월성 등을 발굴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역사관과 문화민족주의가 확립됨
 - 혈통주의적 의미를 갖는 ‘단군자손론’에는 메이지 시대의 만세일계 황국사상과 단일민족주의의 신화, 중국인의 황제기원설 등 근대국가의 통합을 혈통에 의거하고자 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이 잔존함
 - 단일민족론이 일제 침략에 맞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해방 이후의 분단 과정에서 또한 한국동란과 그 이후의 국가적 동원 체계의 형성과 운용 과정에서도 단일민족론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기능하였음
 - 국가와 민족의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정권유지와 자원동원에 유용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도 기본적으로는 탈외세의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보다 선명한 민족주의를 제창하였음
- 단일민족론은 단순한 식민주의의 유산이 아니며 해방 이후의 분단 상황에서 재생산되고 발전된 것이었으므로, ‘왜 단일민족론이 지속되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단일민족론이 남한과 북한의 정권에 의해 똑같이 동원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혈통론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단일 민족이며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특성을 강조해왔던 종래의 관념은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한반도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정치적 구성체로 보는 것과 문화적 구성체로 판단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음
 - 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2, 3세를 한국인 혹은 한국 국민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물음, 결혼이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세대들을 한국인 혹은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정치적 공동체와 문화적 공동체 사이의 괴리와 연관되는 문제임
 - 국기에 대한 맹세가 2007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바뀌면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이 삭제된 것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게 된 한국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근대적 문명론에 대한 환상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적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한국의 역사,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중적 측면이 있음. 후자의 경우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과대한 평가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져올 수 있음
-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한국사회에는 이러한 이중성의 모순이 내재화되고 있음. 즉, 화이론(華夷論)에 의거한 중화질서체제의 종속성, 일제의 식민지 경험, 냉전체제 하에서 자유주의체제의 수호를 위한 군사전략상의 종속성 등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자기비하와 열등감과 이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에 필수불가결한 민족자존심이 복잡하게 교차되어 있음
 - 선진국에 대해서는 문화상대주의 논리로 한국의 민족적 우월감을 제시하면서,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경향이 나타남
 - 해외로의 경제 진출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나 가치관을 경멸하거나, 현지에서 고용한 노동자들이나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격과 문화적 표현을 무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경제적 착취가 이러한 심리적 이중성과 연계될 때 더욱 문제가 노골화될 수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전통주의(traditionalism)’ 와 ‘전통(tradition)’ 의 구별을 통한 긍정적 자원의 발굴
- 1970년대 이래로 한국적 민주주의와 자립경제가 주창되면서 한국의 전통, 전통 문화 등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1980년대 이래로 단군계열의 종교인들에 의해 단, 단학, 기(氣) 수련 등이 유행하기도 함
 - 1978년에 개원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의 고전 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학문적 연구기관이라는 인상보다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책기관이라는 성격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음
 - 식민지 경험과 산업화 과정에서 유교는 서양의 가치에 밀려 근대적 학문의 영역에서 열악한 지위로 전락함. 특히 조선 멸망의 원인을 유교 혹은 유교문화의 폐해로 간주하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며, 양반사상으로 인한 인재등용의 기회 두절과 반상의 계급적 마찰, 가족중심주의, 당쟁, 문약함, 빈공의 존중 등이 유교적 문화의 직접적인 폐해로 지적되었음(현상운 2010[1949])
 - 1980년대 이래 한국의 유교문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작됨. 해외 학계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발전의 원인을 유교문화 속에서 발견하고자 한 유교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국내에서 유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 유교자본주의의 주창자들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의 경제발전을 유교의 가족집단주의, 학습존중, 윤리규범, 근검절약 등에서 찾고자 함
 - IMF 이후 유교자본주의론은 상당히 약화되었음. 가족, 근검 등에 대한 유교의 설명이 내적인 논리에 따라 설명되기보다는 해외 학계의 주장에 추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인상이 강함
 - 한국의 유교문화는 타인에 대한 배려로서의 인(仁)이나 겸양 등 현대 사회에서 발굴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 혹은 동아시아의 특수성의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재조명되어야 함

제4장 교과 영역

- 국민정서로 간주할 수 있는 인정과 인본주의, 공동체 의식 등을 굳이 유교문화에 한정시키지 않고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관련시켜 설명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의 일환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함
 - 한국인의 집단이기주의와 폐쇄성의 문제는 심각함. 연구문화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여 지역, 학력, 계층, 직업, 성별, 혼인 상태 등의 조건들로 서로 구별 짓는 경향이 현저함
 - 한국인들 사이에 문화적 장벽이 만들어져 ‘우리’ 라는 집단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시키는 현상은 일상적인 문화의 일부임
 - 가족중심, 연고주의, 집단이기주의는 유교문화 자체의 논리적 귀결이라기 보다는 식민지 경험, 산업사회의 소외현상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임
 - 국민정신을 특정한 문화적 요인과 관련시켜 미화하거나 비판하는 논의 방식은 자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임
 - 민족 문화의 보전과 창달이라는 주장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어오는 전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견지하기 위한 방편 이상으로 강조될 경우 과거지향적인 차원에서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자는 주장으로 경도될 수 있음
 - 전통은 현대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적 자원임
 - 그렇지만 전통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전통에 매몰된 전통주의로서 사유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국가의 강조로 인한 지역과 사회의 주변화 현상
- 제국주의 침략과 냉전을 겪고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강력한 국가가 이상화된 동아시아에서는 근대 서구와 비교하였을 때 ‘사회’가 ‘국가’에 비해 약했다고 할 수 있으며, 열등감과 자존심이 교차하는 역사적 경험은 동아시아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강력한 국가를 요청하는 심리를 가지게끔 추동하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동아시아지역은 집약되고 축약된 형태로 근대국가를 형성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과 국립대학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형성함
 - 국가 주도로 인한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개발 전략이 채택되어 국내 각 지방의 전통과 자원은 약화되고 때로는 억압되었음
 - 서울, 도쿄, 베이징 등 대도시에 대한 인상이 타국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져 타국 혹은 타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전체적인 표상이 어렵게 됨
 - 수도권 중심은 수도권의 서울문화와 지방문화의 균형을 상실하게 하며 지방문화에 대한 수도권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할 수 있음
 - 메트로폴리스로서의 서울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지방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방문화의 보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의 형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토대로 그러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등의 표현에 내재된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장주도 경제 정책과 경제적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로 수도권이 비대하고 있으나, 삶의 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경제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삶과 문화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제2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

1. 개요: 주제의 제시 방식

-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는 환경의 변화와 교육 대상자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적응성과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문화다양성은 문화가 가진 역동성과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인정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임.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고정되거나 한정될 수 없으며, 교육의 시점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강조되는 지점 역시 변화되어야 함
 - 또한 문화다양성 교육에서는 인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및 행동과 표현 영역이 지니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육대상자의 삶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된 주제의 선정이 필수적임
 - 예를 들어 오늘날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이십년 전 캐나다에서 이루어졌던 문화다양성 교육과 같을 수 없으며 같아서는 안 됨
 - 나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경우도 대상의 교육 수준이나 연령, 직업,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제가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문화다양성 교육 지침서들은 평면적인 주제 일람만을 제공하거나 편향된 관점에 기초하여 주제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주제의 유연한 확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 지침서에서는 주제의 병렬적인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사회적 이슈 속에서 문화다양성의 맥락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상황에 맞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문화다양성 교육 주제 편성의 지도’ 를 제시하고자 함
- 개념적인 관점에서, 현상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은 사회문화적인 삶의 영역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개입하여 영향을 줌으로써 현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언어 사용에 있어 세대차라는 요인을 고려하면 ‘기성세대의 언어와 다른 신세대 언어’ 라는 구체적인 문화다양성 사례를 얻을 수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현대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으로는 **세대, 지역, 젠더, 계층, 소수자**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영역으로는 **언어, 예술,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교육, 종교** 등을 들 수 있음.
- 이상의 여섯 가지 사회문화적 영역을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주제 영역(theme)으로 삼고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다섯 가지 주요 요인을 일종의 변수(variable)로 각 영역에 적용시키면, 다음 같은 개념적인 문화다양성 교육 주제(topic)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음

〈표 4-2〉 문화다양성 교육 주제의 개념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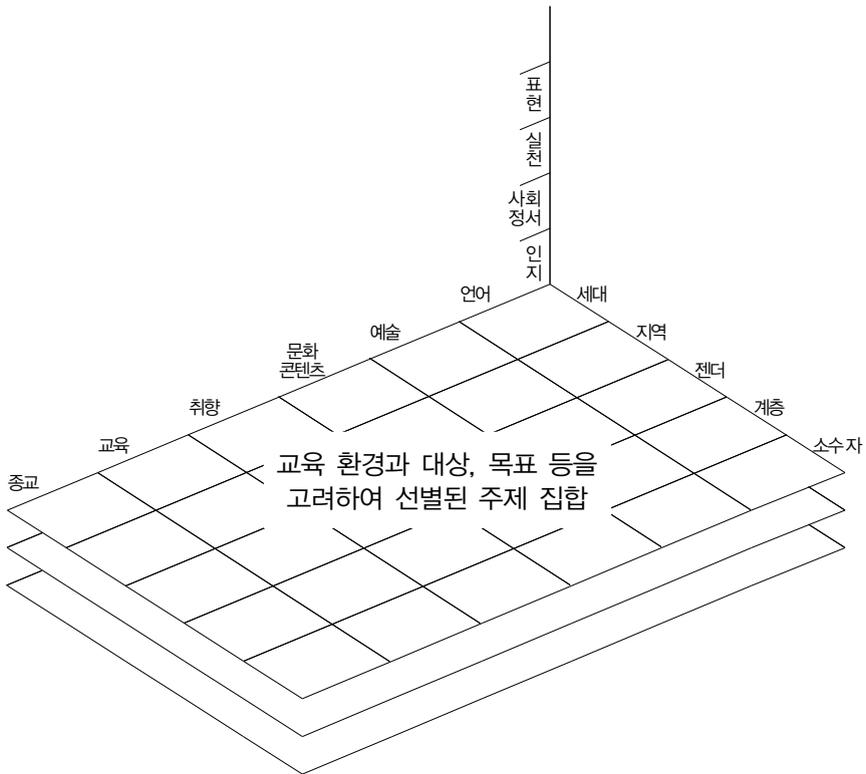
영역 요인	언어	예술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교육	종교
세대	주제 1a	주제 2a	주제 3a	주제 4a
지역	주제 1b	주제 2b	주제 3b
젠더	주제 1c	주제 2c
계층	주제 1d
소수자	주제 1e	주제 5e

- 개발자는 이러한 주제의 지도를 개념적 도구로 삼아 수업의 인적, 물적 조건에 대한 고려 위에서 교육 주제를 자유롭게 구상함으로써 교육 커리큘럼의 각론부를 편성하되, 지도의 틀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람
- 주제를 편성함에 있어 지도의 모든 빈칸(주제 1a-5e)을 다 채울 필요는 없음. 각론부의 주제는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을 골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주제를 제시함에 있어 지도에 제시된 순서를 따를 필요도 없음. 선별된 각 주제는 개발자의 판단에 따라 교육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게끔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장 교과 영역

- 나아가 선택된 각 주제는 각 수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영역에 따라 세부 목표,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그에 맞는 교수법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이는 커리큘럼 개발자, 혹은 교사나 강사가 교육의 대상과 환경, 주어진 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임
 - 추구하는 교육 영역은 ‘인지 → 사회정서 → 실천, 혹은 표현(두 영역은 독립적임)’ 순으로 심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 주제의 넓이와 깊이를 시각적인 조감도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3〉 교육의 영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 주제의 확장



제4장 교과 영역

- 이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 주제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은 교육의 대상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확장되고 세부적으로 조정된 주제 집합을 제시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이 열린 구조를 가지고 확산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문화다양성 교육은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들과 달리 반복적인 교육에 의한 확실한 내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접근에 따른 주제의 편성은 반복 교육에 따르기 마련인 피로와 효과 감소를 방지해줄 수 있음
 - 또한 유연한 주제 선택의 가능성은 다른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교과적인 노력에 탄력을 부여할 수 있음

2.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 영역

- 본 지침서에서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관련 선언 및 협약에 나타나 있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설명에 기초하여 언어, 예술,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교육, 종교 등의 6개 영역을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요 주제 영역으로 제시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은 사회의 특정한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의 보편적인 성질이자 하나의 사실임
 - 나아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것처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역시 사회문화적 영역이나 주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지어질 수는 없음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을 보다 수월하게 자각할 수 있는 사회 영역들을 선별하여 교과과정의 탐구 주제로 제시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구체화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본 지침서에서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 그리고 그에 관한 주요 해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 영역(theme)들을 제안하고자 함

제4장 교과 영역

(1) 언어

- 전지구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관점에서도 언어는 문화다양성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임
 - 언어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규범은 사람들의 사회적 삶과 개인적 삶의 모든 측면과 영향을 주고받는 고도로 복잡하고 유연한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에 타언어의 이해는 문화 간 대화를 가능케 하는 충분조건임
 - 이러한 견지에서 유네스코는 언어다양성의 보호를 주요 과제로 천명하고 있으며 타언어에 대한 이해가 세계 여러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작동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66-68)
- 일반적으로 언어다양성 교육은 외국어 학습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내적 언어다양성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선행된 문화다양성 교육을 살펴보면 언어다양성 교육은 주로 다른 언어의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처음 시작한 국가들이 다언어 국가이거나 지배적인 언어가 있되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은 최근까지 기본적으로 한국어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증진과 관련된 교육이 외국어 교육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환경이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보다 언어 사용의 내적 다양성과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의 내적 언어다양성은 미디어의 발달과 교육 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음
 - 한국사회는 한국어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적 단일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그 안에서는 다양한 언어 사용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내적 언어다양성은 글로벌화와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가속되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영어를 위시한 외국어의 사용과 미디어와 문화컨텐츠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신세대 언어의 발달, 그리고 하위문화 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집단 고유의 특징적 언어 관행 등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다양성의 주요 흐름 가운데 일부임
 -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영어 어휘 및 표현 사용의 급증임
 - 1960년대에 시작되었던 정부의 한글 전용 정책 및 한자 사용의 증지는 한국어 사용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어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의 조어 능력이 약화되는 결과도 가져왔으며 새로운 어휘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우리말의 어휘와 표현이 개발되기 보다는 영어의 어휘와 표현들이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도입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함
 - 이러한 영어 어휘와 표현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어는 사회적 구별 짓기와 차별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영어 능력은 진학 및 취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영어 학습과 관련한 사교육 및 해외연수 등의 관행은 영어가 계층적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을 만들었음
 - 여기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등 정보통신기술의 환경과 기반에서 영어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영어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 사회적 경험과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언어다양성은 대화나 저술과 같은 직접적인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교육, 예술 등과 같은 다른 사회문화 영역들에서 문화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예술

- 예술은 문화다양성의 근저에 창의적인 충격을 가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근원적인 동력의 하나임(상계서: 139)

제4장 교과 영역

- 예술적 창의성은 과학적 창의성과 더불어 한 사회를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고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장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됨에 따라 예술적 활동과 실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폄하되고 있음
 - 그나마 예술적 활동과 실천이 주목을 받는 경우는 문화 산업이나 관광 산업 등과 같은 상업 활동과 관련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물질적 풍요의 부작용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성의 상실, 소외,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제라는 점에서 마땅히 가치의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 예술적 견해와 공감, 표현의 확대는 모든 형태의 예술적 창작과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교류 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오늘날 예술은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패션 및 관광 산업 등을 매개로 상업 부문과의 강한 적실성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의 주제로서 예술을 다룰 때에는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결정된 예술 개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 것이 중요함(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140)
- 즉, 주류 문화에 의해 예술로 인정된 특정한 창작물의 세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문화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질문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서구사회에서는 현대의 예술 체계가 위계적인 권력 구조 속에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러한 권력구조는 '문화적 타자'의 예술을 배제함으로써 그것을 지탱하는 권력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임
 - 비서구 사회의 토착 예술이나 '이국적' 예술은 서구 문화에 기반을 둔 '공식' 예술의 외생적 형태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상계서: 141)
 - 예술적 창의성은 특수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에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다시 말해 예술은 미술관이나 공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에 녹아들어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자 문화이며 누구나 예술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술 활동과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예술다양성을 양적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실제 내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날 예술 세계에서 다양성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
 -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예술의 획일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음악과 시각 예술은 시장성을 갖춘 특정 형태만이 일부는 대중예술로, 또 다른 일부는 고급예술로 범주화되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문학은 출판업의 퇴보와 궤를 같이 하여 심각하게 위축되어 가고 있음. 또한 전통예술은 창조성을 잃어버린 채 단지 보호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예술다양성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되살려내고 이를 통해 숨어있거나 사장될 처지에 놓여있는 예술 활동을 발굴해내는 것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예술 영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그 초석을 놓아줄 것임
 - 서구에서는 이미 예술 행정의 민주화, 예술 분야에서의 다양성 확보 등과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예술이 지닌 권위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3)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 오늘날 미디어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 간 교류를 선도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영상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등장 및 확산은 영화, 대중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 비디오 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해주었음
 - 미디어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은 예술, 커뮤니케이션, 여가 활동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창조적 활동에서 파생된 산업 부문이지만, 오늘날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고도로 역동적인 분야가 되었기에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세계관, 가치, 취향의 형성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음 (상계서: 109)

제4장 교과 영역

- 미디어와 문화콘텐츠는 특정한 계층이나 세대, 젠더, 혹은 문화적 소수 집단에 의해 선택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택을 좁힘으로써 사회의 내적 범주화를 강화시키기도 함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미디어와 문화콘텐츠에 의한 문화다양성의 제고라는 이상적인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
 -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미디어 기술의 극적인 발달은 미국을 위시한 일부 선진국의 문화콘텐츠 상품이 다른 나머지 국가들의 문화콘텐츠 시장을 잠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끔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음
 - 국내의 경우에도 지난 20년간 문화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문화콘텐츠나 혹은 국내의 대형 기업들이 제작한 문화콘텐츠가 소비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스크린쿼터 제도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대표적 실천의 하나로서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지지와 주목을 받아왔음. 그러나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이 지닌 이와 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스크린쿼터 제도는 세계적인 자본을 등에 업은 헐리웃 영화로부터 한국의 영화 산업을 지켜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 영화계는 현실적으로 다양성의 감소라는 당혹스러운 결과에 직면하고 있음
 -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쿼터 제도가 국내 대기업이 투자하고 유통하는 영화들의 제작과 흥행에만 도움을 주었고 독과점 상황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일부 미디어와 문화콘텐츠가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강화하고 있는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함
 -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산업은 격심한 경쟁을 이유로 시청률과 관심의 확보에 집착하는 가운데 공공성과 교육적 기능에 대한 고려는 위협을 받고 있음
 -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화콘텐츠가 대중적 인기와 관심을 끌기 위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예를 들어 우리와 다른 외모나 습관을 가진 외국인을 희화화하거나 문화적 편견과 오해를 조장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대중음악 등을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관찰할 수 있음
 - 사회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음
 - 일부 문화콘텐츠에 의한 차별적 인식의 재생산은 문화다양성 시각의 함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화다양성 교육은 바로 이와 같은 사례들을 중요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매스컴의 보도나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담겨있는 문제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발견하고 토론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대응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다양성 부재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작 부문뿐만 아니라 유통 부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가 가진 힘은 그것이 다수의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미디어를 통한 유통 체계가 대기업 자본에 잠식되어 있는 까닭에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 창작자의 작품은 대중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범람과 그에 대비되는 독립 영화 상영관의 절대적 부족 현상은 미디어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화콘텐츠 유통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계속되고 있는 미디어의 혁신은 대안적인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그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점점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발달된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향유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

제4장 교과 영역

(4)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양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행함으로써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재확인함
 -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은 화장, 옷차림새, 헤어스타일을 포함하는 몸치장의 방식, 선호하는 음식, 주거의 양식, 취미와 여가활동 등과 같은 일상의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드러남
 - 이러한 실천 영역은 일상에서 문화다양성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그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음. 그러나 취향에 기초한 일상에서의 반복된 실천은 자신의 문화적 지위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확인하는 강력한 기제임
-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의 시각을 가지는 것은 자신이 행하는 일상적인 실천이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학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은 학력이나 출신계급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사회 내에서 구조적으로 획득되고 차별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취향에 기초하여 사회 내에서 계급적인 차별화, 혹은 구별짓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함(피에르 부르디외 저, 최종철 역 2006[1979])
 -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계층, 세대, 혹은 젠더에 따라 각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다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나아가 전형적이라고 여겨지는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에는 ‘전통적인 한국식’ 삶의 양식에 대한 규범적인 수준의 인식이 존재하지만, 그와 같은 한국식 전통은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흔히 이야기되는 한국적인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은 알고 보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혹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 삶에서는 유리된 채 특수한 맥락 하에서만 작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서양의 라이프스타일이 수입되면서 이에 맞서 소위 한국의 전통 또는 한국적 라이프스타일이라 상상된 것을 지켜내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시도들은 급격한 변동기에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업주의적인 동기로부터 출발한 것임
 - 한편, 이러한 시도들은 결과적으로 단일 민족, 단일 문화라는 담론과 인식의 틀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의 경우 계급이나 계층에 기초한 취향 차이는 아직까지 강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세대 간, 젠더 간 취향 차이는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편임
 -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분단을 겪었기 때문에 사회이동이 격심했고 계급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상류층 취향이나 노동자 취향이 아직은 극명하게 갈리지 않고 있음
 - 앞으로 그러한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가운데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유행에 대한 선별적인 수용을 통해 세대와 젠더에 따라 서로 다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 공유되고 실천되고 있으며, 이는 세대간, 젠더간 불통과 갈등의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5) 교육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교육은 내용적, 제도적 측면에서 한층 더 유연하고 적절하며 포괄적인 형태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79)
 - 최근 들어 지식 전수뿐만 아니라, 경험과 기억, 창의성, 상상력과 결합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을 포함하는 가치의 전달도 교육의 구성요소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선언과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학습 과정의 문화적 측면을 적절히 감안하여 교과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음

제4장 교과 영역

- 사회적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은 개인들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과 자기 발견 및 자아실현 등을 통하여 각자의 사회적, 문화적 목표 달성을 이끌어줌과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규율을 갖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분류하여 노동시장에 공급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
 - 학교 교육은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념과 가치, 사고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해방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개인을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만들고자 훈련시키고 선별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억압적인 측면을 지님
 - 이와 같은 교육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이 가지는 기능성과 그 한계 및 사회적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선제적 조건이자 교육의 주요 주제이기도 함
-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교육 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의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 제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주로 민족적, 언어적, 계급적 배경이 다른 학습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특정한 문화적 및 계층적 필요와 감각에 따라 개발된 교육과정과 학습자료 및 교수법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차별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보다는 과열된 교육 제도가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과 목표의 경직성과 그에 의해 조장되는 성적 우선주의, 우열주의, 학벌에 기초한 차별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교육 제도는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를 유독 강조하고 있음. 이는 여러 가지 원인과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쉽게 고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다만 이러한 현실이 교육을 통한 해방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개인들의 인성과 문화적 감수성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유념하여야 함
 - 문화다양성 교육의 근본적인 지향점 중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경쟁과 평가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오해와 편견에 의한 구조적 차별을 발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임

제4장 교과 영역

- 평가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이 평가 모든 종류의 측정이나 그로 인한 우열 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한줄 세우기 식 교육이 실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런 평가가 어떤 가정과 편견, 오해에 입각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음
 - 나아가 그에 따른 부작용이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하며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건강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교육의 중요한 한 측면이기도 함
-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육은 문화적인 현상이며 제도화된 학교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 활동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민국가가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확보되면 사회가 원하는 가치관을 일률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제도적인 통일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사회는 교육의 제도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임
 - 그러나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교육 역시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와 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 평생교육, 배우는 사회, 지식사회는 전부 세대나 문화 안에서 진행되는 학습 과정의 문화적 차원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임

(6) 종교

-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종교는 문화다양성의 시각과 그에 바탕을 둔 포용의 자세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임
- 종교적 차이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 갈등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실제 세계 각지에서는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전쟁이나 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음
 - 그러한 상황적 이유로 종교적 차이는 상당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종교는 문화다양성의 영역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복잡한 주제라는 암묵적인 거리낌이 공유되고 있기도 함

제4장 교과 영역

- 그러나 종교적 차이는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간과될 수 없고 또한 여타의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분리될 수 없음. 종교는 종교 기관이나 특정한 종교적 상황에서만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와 행동의 양식, 가치관, 취향 등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임
- 한국은 종교적 다양성과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사회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차별이 사회 내에 암재(暗在)하고 있음
 - 기독교 사회인 유럽 국가나 이슬람 사회인 아랍 국가와 달리 한국사회는 특정 종교가 사회적 가치의 근간에 있지 않으며, 불교, 기독교, 유교가 영향을 주며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관용을 갖춘 사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주류 종교들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된 종교적 갈등에 의한 사회적 긴장감이 높은 상태임
 - 불상이나 단군상에 대한 훼손 행위,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격 등은 종교적 갈등과 차별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단순히 교리적 차원에서의 관용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그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즉, 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 문제는 젠더의 문제, 이념과 분단의 역사적 문제 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로서 종교를 다룰 때에는 종교가 개인의 가치관, 정체성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3. 문화다양성을 발생시키는 요인

- 이상의 여섯 가지 주제는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과 결합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경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상황들로 구체화될 수 있음
-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인들로는 세대, 지역, 젠더, 계층, 소수자 등을 들 수 있음(조옥라 2013)

제4장 교과 영역

(1) 세대

- 세대에 따라 경험과 환경이 크게 다르며 다른 경험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사고, 취향, 행동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고도의 압축 성장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여 세대 사이의 사회경험의 차이가 아주 큰 나라임
 - 더욱이 최근 들어 세대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세대 사이의 격차, 세대 사이의 갈등, 세대 사이의 문화적 충돌이 이전보다 강한 편이며, 세대 격차가 선거 때마다 세대 간 지지정당의 차이에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
-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노령화의 문제와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 문제는 세대 간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임
 - 이러한 인구경제학적인 배경 위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의 대결 구도가 조장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대 간 가치차이에 의한 가치갈등이 가족생활과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특히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등에 있어서 세대 간 문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젊은 세대의 문화는 기존의 사회문화에 반항하는 성향을 띠고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세대 간 갈등 해소에 근본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세대 간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거나 축소시키고 서로 나타나는 문화는 다르지만 각각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가 가진 다양성과 창조성을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음
 -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관점과 가치의 수용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기여를 가능하게 할 것임

(2) 지역

- 한국에서 지역적 차이는 정치색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는 대립적인 인식구조를 내포하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한국은 지역색이 강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정치와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직장생활이나 업무네트워크에서도 지역색이 작동하여 출신에 따라 네트워크가 출진지에 따라 편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에서는 지역적으로 방언의 차이와 약간의 관습 차이가 존재하는 정도이지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상호간의 대립적 인식 구조가 더 중요한 문제임
- 문화적 차이의 측면에서는 지역색보다는 도시와 농촌 또는 농촌에 유지되는 전통과 서구화된 도시의 차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과 도시를 매개로 한 전통과 현대는 차별보다는 도시의 성격과 변화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임
 - 전체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속문화는 지난 50년간 크게 약화되었음. 각 지역마다 지역적 특색을 가졌던 전통문화가 약화되고 서울에서 주도하는 대중문화나 정보가 TV, 인터넷, 서적, 신문 등을 통해 유입되어 전국의 문화가 서울문화에 의해 획일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어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과 민속이 보존되고 있고 또한 부활되는 경우도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지역을 매개로 한 차별이나 낙인을 찍지 않고, 문화적으로 상호 긍정적인 인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상호공존과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젠더

-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강고한 남녀역할 차별의식이 존재함
- 이러한 역할분업은 동등한 분업이 아니라 불평등한 분업이어서 남녀차별의 토대가 되고 있음
 -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억압적인 의식을 고착화시키는 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

제4장 교과 영역

- 최근 들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약화와 더불어 강고한 남녀분업의 틀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문화권이나 자유로운 표현권이 제약되고 있음
 - 육아와 음식은 여성의 일이라는 관념이 강고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여성에게 보조적인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사결정권은 남성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음
 - 여성다움에 대한 압력으로 패션, 화장, 성형, 언어, 태도, 육아, 가정 등에 집중하여 여성성이 강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들 영역에서 여성들의 관심이나 관점이 주도적인 문화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남녀차별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능동적인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제약당하고 있고, 남성 위주로 주류문화가 형성되어 주류문화에서 여성의 문화와 관점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음
- 다른 한편, 최근 들어 여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더불어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남성 사이에서 그로 인한 역차별의 불안이 확산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음
 -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가부장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집단이 새로운 양성평등 논의에 대해 당혹감이나 불안을 느끼며 여성과 남녀평등 논의에 대해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함
 - 그러나 젠더 관점을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니는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결국 남성 역시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교육은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이 가진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상호 인정과 긍정을 바탕으로 여성이 더욱 능동적인 사회주체로서 한국문화의 창조적인 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임

(4) 계층

-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의 축소와 양극화는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임
 - 그에 따라 세대를 넘어 계층이 전승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계층 간 문화적 차이와 불통이 증가하여 문화적으로도 계층적 단절이 나타나고 있음

제4장 교과 영역

- 그 결과 하층과 중하층 시민들이 문화향유와 문화창조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문화가 지니고 있는 창조적 잠재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집단 간 문화적 차이가 계층 차이와 연결되면서 차이에 대한 차별의식이 형성되기도 함
- 문화와 예술의 상업화, 산업화, 승자독식체제가 정착되면서 소수가 득세하고 다수가 활력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들이 관심의 대상인 소수에 집중하여 국내외 세계에 퍼뜨리기 때문에 이들 소수가 해당영역을 주도하고 독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취약계층이 사회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능동적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계층적 문화단절이 계층 간의 단절과 갈등을 심화시켜 한국의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필요함
 - 취약계층의 문화도 다양성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가 중상층의 문화와는 여러모로 다르지만 상호이해와 치유 그리고 상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문화단절로 부정적 자아정체성과 폐쇄적인 빈곤의 문화가 정착되면 세대를 이어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5) 소수자

- 성소수자,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의 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 소수자의 문화는 하위계층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주류문화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대체로 가치가 적고 일탈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자들에게는 직접적, 암묵적으로 주류문화로의 동화가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제4장 교과 영역

- 그러나 소수자의 문화는 제거해야할 대상도 아니고 박제의 대상도 아님
 - 인권적 견지에 있어서나 문화다양성 정신의 견지에 있어서나 이들이 지닌 관점과 표현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것이 한국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함
 - 사회적 폐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모든 문화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삶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여주며 한국문화의 창조적 활력을 증대시키는 토대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교육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제5장 교수법

제5장

교수법

제1절 일반 원칙

제2절 유의사항

제5장 교수법

제1절 일반 원칙

- 본 장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활동 등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함
- 거의 모든 교육이 공유하는 고민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거나 통용될 수 있는 교수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움
- 문화다양성 교육은 특히 지식과 정보 등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정서와 행동과 표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교수법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담당자가 적절한 교수법들을 선택하거나 적절한 조정과 변형을 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법에 개방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서구사회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발전한 교수법은 해당 사회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민족적, 언어적, 계급적 배경이 다른 학습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
 - 예를 들자면 영어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리브지역 이주자 혹은 흑인 여학생을 백인 남성 교사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임. 특히 학교의 공식 교육 과정은 대개 주류 사회의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중산층의 감각과 필요에 따라 개발되는 경향이 있음
 - 교수법의 개발 또한 성취동기의 존재 등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자료 등도 주류사회의 가치와 태도와 다양한 가정 등을 반영하고 있음
 - 그러므로 민족적, 언어적, 계급적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 학습자료와 교수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교사가 어떻게 하면 차별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다루어져 왔음
 -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실천 과정에서 자칫하면 새로운 차별의 계기를 제공한다거나 상처를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습현장에서의 신중하고도 탄력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함

제5장 교수법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문화다양성 교육의 교수법 원칙으로서 제안함
- 첫째,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하여 고유하고 독특하며 다른 교육의 경우와 확연히 구분되는 교수법이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는 않음. 문화다양성 교육의 교수법의 특징은 열린 교수법임
 - 문화다양성 교육의 교수법은 그 자체로 고유하거나 독창적인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교육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수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마련되어 있는 커리큘럼과 교재, 다양한 교수 방법과 자료 등은 그것이 준수해야 하는 전범(典範)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자원으로 이해해야 함. 교수법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함
- 둘째, 문화다양성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을 지향하지 않음
 - 일반적인 원칙과 사전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에 기초하되,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다양성 교육 교수법은 현장 중심이면서 학습자 중심이어야 함.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문화다양성 교육에는 인지, 정의, 행동, 실천 영역과 더불어 문화창조와 표현이라는 영역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의 교수법은 이들 각 영역의 교육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함
 - 특히 문화창조 및 표현 영역의 존재는 다른 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문화다양성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며, 따라서 해당 영역에서 기대되는 교육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수법의 개발과 그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5장 교수법

- 문화다양성 교육이 이렇게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학습 현장과 학습자 구성을 고려하여 교수법을 현장에서 선택하고 조정하고 변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넷째, 창의성은 문화다양성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기도 함. 그러므로 학습 현장에서 창의적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문화예술 교육 종사자들이 문화다양성 교육 및 유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예술 교육 관련 교수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창의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 교육 관련 교수법의 사용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현장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수법의 세심한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 다섯째, 문화다양성 교육은 교수법 자체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해야 함
 - 교육 대상인 학습자의 문화적 차이에 민감해야 하고 성인지적 표현 및 행동을 숙지해야 하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도 유의해야 함
 - 특히 교육자가 피교육자보다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경험 등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존재로 군림하면서 권위적이고 일방통행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은 문화다양성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제5장 교수법

제2절 유의사항

- 첫째, 외국의 국제이해교육이나 다문화교육에서 논의되는 교수법과 학습 자료 중 상당수가 번역되거나 소개되어 있는 바 이들을 비판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개발된 문화다양성 교수법과 학습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를 21세기 한국에서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교수법으로 직접 채택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함
 - 다만 교육자 또는 학습자의 민족적 배경, 계층적 배경, 젠더 및 성적 취향, 언어 등의 다양한 요인 등에 어떻게 대처하며 학습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주목하는 서구사회의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향후 우리사회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음
 - 한국사회도 결혼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계층, 젠더, 성적 취향, 언어의 사용 등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점들을 유념할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국내에 소개되었던 외국의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자료 가운데 일부는 적절히 사용되었으나 상당수는 교육 대상의 사회적 배경이나 지적 수준 또는 인생 체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육 담당자 및 보조 인력의 준비나 경험 부족, 공간의 환경과 설비의 부적절 등으로 인해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 둘째, 일부 도입이 쉬운 교수방법이나 활동 등만 선택이 될 경우에는 교육 전체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일부 도입이 쉬운 교수방법이나 활동 등만 선택이 될 경우에는 교육 전체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또한 특정 직능 단체나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교수법으로 활동의 대부분을 편성하여 특정 주제나 영역에 대한 교육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중요한 영역과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등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제5장 교수법

- 셋째,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다양성 교육은 특성상 교육현장에서 교육대상자의 구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과 적응성이 발휘되어야 하기에 교육자의 역할과 능력과 경험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표준적인 교수방법과 활동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질 높은 교육자의 양성 및 교육자 훈련가(teachers' trainers)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제6장 평가

제6장

평 가

제1절 교육 후 평가에 관한 제안

제2절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용 체크리스트

1. 교육목표
2. 교육 비전과 목적
3. 교육 내용
4. 학습 대상
5. 교육자 및 교수법
6. 평가
7.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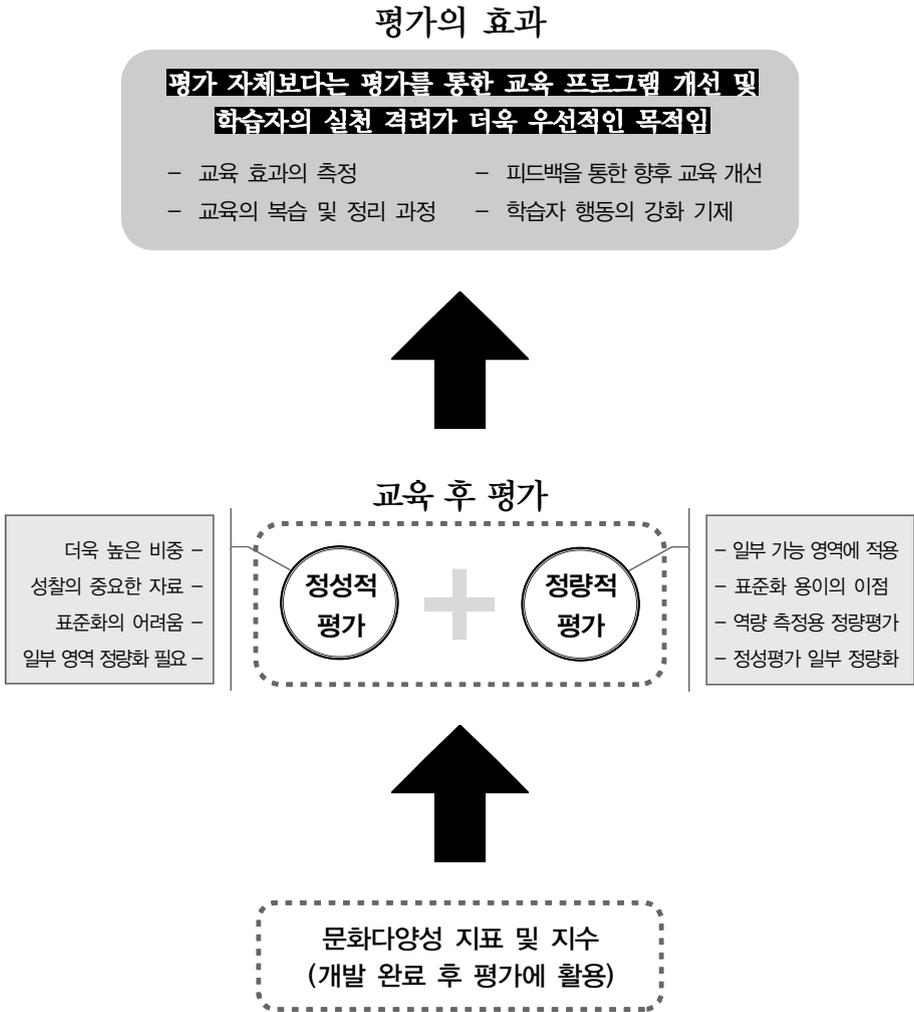
제6장 평가

제1절 교육 후 평가에 관한 제안

- 문화다양성 교육 후 이루어지는 해당 교육에 대한 평가는 평가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평가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학습자의 실천 격려를 목적으로 해야 함
- 이 장에서는 이러한 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성 하에서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가 유념해야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문화다양성 교육이 온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커리큘럼 내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평가는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피드백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교육을 개선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지식과 정보 등 인지적 차원 외에 사회정서 차원, 행동의 차원, 문화창조와 표현의 차원 등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진 문화다양성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의 방식과 목적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방식이나 목적과 다를 수밖에 없음
- 둘째, 문화다양성 교육의 성격 상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몇몇 영역이나 주제와 관련해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정성적인 평가의 경우 성찰과 숙고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 방식만으로는 많은 수의 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 지표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한 몇몇 영역과 주제를 선정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함
- 셋째,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평가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정성적 평가를 정량화하는 방법 역시 고민해볼 것이 요청됨. 정성적인 평가 항목들 가운데 일부 항목은 평가자에게 수치를 부여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정성적 평가의 정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음

제6장 평가

〈그림 6-1〉 교육 후 평가의 흐름



제6장 평가

- 넷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교육 전과 비교하여 학습자의 문화다양성 역량이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역량 변화에 관한 평가는 단순히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용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더 나아가 향후 학습자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의 동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음
- 다섯째, 현재 연구 개발 중인 문화다양성 지표 및 지수 개발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지표 및 지수를 교육의 평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다양성 지수 및 지표 개발 연구가 완성되고 이를 문화다양성 교육의 평가에 활용하게 될 경우 일관된 측정 방법과 항목을 사용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유용성을 증대시킬 것이 기대됨

제6장 평가

제2절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용 체크리스트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자는 개발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하고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교육 커리큘럼의 적실성과 유효성을 향상시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도 별첨해 두었음

1. 개발의 중점

- 문화다양성은 무엇을 지향하는 가치이며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는가?
- 문화다양성 개념과 관련 논의, 그리고 법규와 정책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며 무엇이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있는가?
- 다문화교육 등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존 교육들의 커리큘럼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차별점을 가진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이 지니는 범교과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타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영역과 활동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2. 교육 비전과 목적

- 문화다양성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이 과거의 교육과 달리 지식과 정보의 습득(즉, 인지적 측면)을 주로 강조하기보다는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개발되었는가?

제6장 평가

- 지식, 가치, 행동 차원에서의 변화가 창의적인 문화적 창작물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유도하고 자극하게끔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가 문화 내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존중심 및 글로벌 시민 정신을 함양케 하고, 경계 간 문화 해독력을 갖추도록 하며, 문화다양성에 기초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긍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는가?
- 문화의 경계를 넘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 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는가?
- 서로 다른 사회 범주 간의 이해와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는가?

3. 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 문화다양성이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가?
-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 및 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이 인권 교육 및 평화 교육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이 인성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가?
- 새로 개발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은 기존의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교육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은 한국사회가 그간 강조해왔던 문화적 동질성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와 한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차별과 배제의 극복을 도모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가?

제6장 평가

4. 교육 내용

- 문화다양성 개념 및 그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한 소개가 백과사전식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수준의 배경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이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도 총체적인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 유사한 용어들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문화다양성 개념은 서구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지만 그 가치와 정신은 현대 한국사회에도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시대적 조건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 문화다양성 개념이 한국사회에 어떤 의미와 가치로 받아들여졌을 때 적실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 부여를 하였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제를 제시함에 있어, 언어, 예술,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교육, 종교 등의 영역을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시와 논의 사항을 포함시켜 두었는가?
- 언어, 예술,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교육, 종교 등의 문화다양성 주제 영역을 다룸에 있어, 각 주제 영역을 지역, 계층, 세대, 젠더, 소수자 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와 논의 사항을 포함시켜 두었는가?
- 구체적인 학습 주제와 과제를 편성함에 있어 교육의 대상과 환경, 주어진 자원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포괄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은 열린 형태를 지향하며, 교과영역의 내용을 구성하는 각 영역과 주제들과 관련된 예시와 논의가 취사선택이 가능한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가?

제6장 평가

5. 학습 대상

-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이 사회 구성원 전부이며, 특히 다수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반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반영되어 있는가?
 - 현대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는 이주자나 소수자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재화함으로써 그와 같은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관습적인 실천을 통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선주민, 즉 대다수의 일반 국민임
 - 단, 문화다양성 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침이 소수자는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됨. 상기 지침은 ‘소수자만’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소수자도’ 자연스럽게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커리큘럼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는가?
-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학습자들의 특성(교육 수준, 직업 경험, 관심사, 연령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있는가?

6. 교육자 및 교수법

-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지식, 경험, 태도를 갖추고 있고, 필요한 훈련을 이수한 전문성 있는 교육자가 다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어진 교육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졌는가?
- 교육자가 현장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자신의 재량과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교육 커리큘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졌는가?

제6장 평가

- 교육자가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과하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사회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표현적 측면 등을 다룰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 적극적인 체험이나 참여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 교육 대상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민족, 계층, 젠더, 연령, 종교 등), 교육 및 지적 수준, 인생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법을 자유롭게 활용하되,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가?
- 해외에서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교수법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담당자 및 보조 인력의 준비나 경험 부족, 공간의 환경과 설비의 부적절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교육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교육 커리큘럼 개발 시에 고려되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은 교육자의 역할과 능력과 경험과 열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질 높은 교육자의 양성 및 교육자 훈련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었는가?

7. 평가

-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피드백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가?
- 교육 후 평가가 단순 측정을 위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이들이 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고,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예시가 제공되어 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의 성격 상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몇몇 영역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계량화 가능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가?

제6장 평가

- 문화다양성 교육 평가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설문, 면담, 관찰, 기타 표준적 진단 및 측정 도구 등)을 소개함에 있어 각각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한계 등이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가?

8. 일반 사항

-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함에 있어 단순히 서구의 선례나 경험을 추종하거나 글로벌한 추세를 모방하지 않고, 한국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였는가?
-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창의적 표현이 허용되고 고취되는 것이 왜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이 자칫 불안과 오해, 저항과 분노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으며, 그와 같은 주의사항을 교육 커리큘럼에서 강조해 두었는가?
 -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복적임. 기존의 질서와 가치와 태도와 행동패턴과 표현방식에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 문화다양성 교육은 특히 타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교육들에 비해 더 많은 불안과 오해, 또한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수 있음
- 개발된 교육 커리큘럼이 그것을 이용하여 시범연수를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가?

제7장 유의사항 및 제안

제7장

유의사항 및 제안

제1절 유의사항

제2절 제안

제7장 유의사항 및 제안

제1절 유의사항

- 첫째, 이 지침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시범연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임
- 둘째,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향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 간 소통의 증대와 문화 수용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 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 및 그것의 중요성 역시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셋째,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은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서구의 선례나 경험을 추종하거나 글로벌 추세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유념해야 함
 - 다문화적 공존이라는 면에서 선진적인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타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각 국가의 구체적이며 독특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주어진 현실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등장한 것들임
 - 이들은 보편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맥락을 무시하고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을 커리큘럼 개발자는 경계해야 함. 이는 심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무책임과 지적 게으름의 소치이며 전문가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임
- 넷째,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학습자들이 문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양성이 창의성과 관련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다양한 목소리와 창의적 표현이 허용되고 고취되는 것이 왜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와 문화다양성이라는 핵심 개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가 개개인의 사적, 사회적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문화다양성 교육이 제대로 공감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함

제7장 유의사항 및 제안

-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다문화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외국인 혐오주의가 심화되고 다문화정책반대 카페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과 교육의 핵심 가치가 굳건히 정립되지 못했거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화다양성 교육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 다섯째,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복적이며 기존의 질서와 가치와 태도와 행동패턴과 표현방식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유념해야 함. 더욱이 문화다양성 교육은 타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들에 비해 더 많은 불안과 오해, 또한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수 있음
 -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종종 학습자 자신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교육이 지식의 범주를 넘어 가치관이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경향성을 더욱 강해짐
 -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새로운 영어 단어를 몇 개 더 외우듯이 기존의 얇고 넓은 체계는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추가하는 학습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지한 학습과 교육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정서와 감정의 체계를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행동과 실천, 표현의 영역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여섯째, 문화다양성 교육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기대 가능한 것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기존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과 표현을 바꾼다는 것은 때때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영역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주제나 영역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가 특히 기존의 권위나 이해관계와 관련이 될 경우 뜻하지 않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른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논란은 문화다양성 교육의 기본 취지나 추진 방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제7장 유의사항 및 제안

- 특히 한국사회는 일제강점기와 분단을 경험하면서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추진해야 했고 오리엔탈리즘을 상당한 정도로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이슈가 ‘정치화’ 되는 일이 잦음
- 일곱째,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사회 내의 여러 집단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의제를 추구하는 각축장이나 갈등의 장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바로 그 때문에 학습현장 및 학습자에 대한 고려와 배려, 그리고 열린 방식의 학습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임

제7장 유의사항 및 제안

제2절 제안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일단락되고 시범 강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된 전략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특히 기존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다양한 학습현장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연수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 교육의 전략 및 발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1년간의 준비 과정과 3회의 3년 단위 사업이 결합된 중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부록: 체크리스트

부록: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자용 체크리스트

영역	항 목	참조*	확인
개발의 중점	문화다양성은 무엇을 지향하는 가치이며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는가?	전체	
	문화다양성 개념과 관련 논의, 그리고 법규와 정책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며 무엇이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있는가?	1.1절 4.1.1항 4.1.2항	
	다문화교육 등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존 교육들의 커리큘럼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차별점을 가진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는가?	1.1절 3.2절 3.3절	
	문화다양성 교육이 지니는 범교과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타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영역과 활동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1.1절 4.2.1항	
교육 비전과 목적	문화다양성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2.1절	
	문화다양성 교육이 과거의 교육과 달리 지식과 정보의 습득(즉, 인지적 측면)을 주로 강조하기보다는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개발되었는가?	2.1절	
	지식, 가치, 행동 차원에서의 변화가 창의적인 문화적 창작물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유도하고 자극하게끔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는가?	2.1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가 문화 내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존중심 및 글로벌 시민 정신을 함양케 하고, 경계 간 문화 해독력을 갖추도록 하며, 문화다양성에 기초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긍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는가?	2.2절	
	문화의 경계를 넘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는가?	2.2.3항	
서로 다른 사회 범주 간의 이해와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는가?	2.2.3항		

* 참조란에는 빠른 색인을 돕기 위해 직접 연관된 항목만을 제시해 두었으며, 따라서 다른 곳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

부록: 체크리스트

영역	항 목	참조*	확인
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문화다양성이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가?	3.1.1항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 및 감각을 갖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가?	3.1.2항	
	문화다양성 교육이 인권 교육 및 평화 교육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가?	3.1.3항	
	문화다양성 교육이 인성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가?	3.1.4항	
	새로 개발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은 기존의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교육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3.1.5항	
	문화다양성 교육은 한국사회가 그간 강조해왔던 문화적 동질성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와 한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차별과 배제의 극복을 도모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가?	3.1.6항	
교육 내용	문화다양성 개념 및 그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한 소개가 백과사전식 나열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수준의 배경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4.1.1항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이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도 총체적인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가?	4.1.1항 4.1.2항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 유사한 용어들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4.1.1항	
	문화다양성 개념은 서구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지만 그 가치와 정신은 현대 한국사회에도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시대적 조건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4.1.2항 4.1.3항	
	문화다양성 개념이 한국사회에 어떤 의미와 가치로 받아들여졌을 때 적실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 부여를 하였는가?	4.1.3항	
	교육의 주제를 제시함에 있어, 언어, 예술,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교육, 종교 등의 영역을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시와 논의 사항을 포함시켜 두었는가?	4.2.2항	

부록: 체크리스트

영역	항 목	참조*	확인
교육 내용	언어, 예술,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교육, 종교 등의 주제 영역을 다룸에 있어, 각 주제 영역을 지역, 계층, 세대, 젠더, 소수자 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와 논의 사항을 포함시켜 두었는가?	4.2.3항	
	구체적인 학습 주제와 과제를 편성함에 있어 교육의 대상과 환경, 주어진 자원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포괄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는가?	4.2.1항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은 열린 형태를 지향하며, 교과영역의 내용을 구성하는 각 영역과 주제들과 관련된 예시와 논의가 취사선택이 가능한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가?	4.2.1항	
학습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상이 사회 구성원 전부이며, 특히 다수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반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반영되어 있는가?	2.3절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커리큘럼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2.3절 5.1절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는가?	2.3절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실시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학습자들의 특성(교육 수준, 직업 경험, 관심사, 연령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는가?	2.3절 5.1절	
교육자 및 교수법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지식, 경험, 태도를 갖추고 있고, 필요한 훈련을 이수한 전문성 있는 교육자가 다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어진 교육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5.1절	
	교육자가 현장에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재량과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교육 커리큘럼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5.1절	
	교육자가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과하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사회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표현적 측면 등을 다룰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2.1절 5.1절	
	적극적인 체험이나 참여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5.1절	
	교육 대상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민족, 계층, 젠더, 연령, 종교 등), 교육 및 지적 수준, 인생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법을 자유롭게 활용하되, 이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상처나 불쾌감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가?	5.1절 7.1절	

부록: 체크리스트

영역	항 목	참조*	확인
교육자 및 교수법	해외에서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교수법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담당자 및 보조 인력의 준비나 경험 부족, 공간의 환경과 설비의 부적절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교육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교육 커리큘럼 개발 시에 고려되었는가?	5.2절	
	문화다양성 교육은 교육자의 역할과 능력과 경험과 열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질 높은 교육자의 양성 및 교육자 훈련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었는가?	5.2절	
평가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피드백을 통해 향후 문화다양성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는가?	6.1절	
	교육 후 평가가 단순 측정을 위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이들이 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고,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예시가 제공되어 있는가?	6.1절	
	문화다양성 교육의 성격 상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몇몇 영역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계량화 가능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가?	6.1절	
	문화다양성 교육 평가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설문, 면담, 관찰, 기타 표준적 진단 및 측정 도구 등)을 소개함에 있어 각각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한계 등이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가?	6.1절	
일반 사항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함에 있어 단순히 서구의 선례나 경험을 추종하거나 글로벌 추세를 모방하지 않고, 한국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당면 과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였는가?	4.1.3항 7.1절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창의적 표현이 허용되고 고취되는 것이 왜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가?	3.1.1항 7.1절	
	문화다양성 교육이 자칫 불안과 오해, 저항과 분노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으며, 그와 같은 주의사항을 교육 커리큘럼에서 강조해 두었는가?	7.1절	
	개발된 교육 커리큘럼이 그것을 이용하여 시범연수를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가?	-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강내희(2003), 「문화다양성, 세계화 그리고 교역」, 『유네스코세미나: 문화다양성 국제규약 제정의 가능성과 전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 강인애 외(2012a),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대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강인애 외(2012b),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중등교사 대상(지도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김규원 외(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5. 김다원(2010), 「사회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수업 내용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2): 167-181.
6. 김다원(2011), 「동아시아 상호 이력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시론적 연구: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6(1): 100-114.
7. 김세훈(2006),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 김수이, 장진혜(2012),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 종사자/초중등교사대상」,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 김승환(2007),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개신어문연구』 25: 161-180.
10. 김영천 외(2012),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1. 김영천 외(2014), 『문화다양성 교육 매뉴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 김정수(2006), 「문화산업, 문화교역, 그리고 문화다양성」, 『국제통상연구』 11(2): 41-67.
13.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4. 나낙균(2006), 「한미간 방송 시장 개방(FTA) 협상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 35: 36-86.
15. 류정아(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6. 류정아(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7. 문시연(2005), 「문화적 예외 vs 문화적 다양성 논란에 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5: 1-13.
18. 문시연(2007), 「문화다양성 vs 세계화 논란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 41: 151-174.
19.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20. 박선희(200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과 프랑스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3): 195-217.
21. 박애경(2011),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재현 의미: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베네딕트 앤더슨, 윤흥숙 역(2004), 『상상의 공동체』, 나남.
23. 사카모토 히로코 지음, 양일모 외 역(2006),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 풍경.
24. 설규주(2012a),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방향」, 『제1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고문헌

25. 설규주(2012b), 「초중등 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6. 스크린쿼터문화연대(2011),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7.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8.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8),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집문당.
29.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0),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집문당.
30. 유철인(2008), 「문화다양성과 문화이해교육」,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31. 이동성, 주재홍(2012a), 「기초 인성교육으로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함의」, 『제1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2. 이동성, 주재홍(2012b),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개념과 방향」,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3. 이동연(2006),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현실과 대안적 문화정책 구상」,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4. 이동연(2014),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포럼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5. 이동연 외(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36. 이정덕(2012), 「문화다양성 보존과 공존을 통한 창조성 확대」,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7. 임철일 외(2013),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초중등 학생 대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8. 임학순(2006), 「문화상품·서비스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9. 임학순 외(201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컨설팅 및 평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40. 정갑영 외(2004),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41. 정갑영 외(2007), 『문화다양성협약 실행을 위한 문화정책과제 및 교류협력사업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42. 조옥라 외(201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수립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43. 조한승(2008),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국제정치: 국제법 학제적 조망」, 『한국정치학회보』 42(4): 409-428.
44. 차재근(2014), 「지역문화와 문화다양성, 창의적 문화 소통 사례에 대하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포럼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5. 추미경 외(2014a),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행정인력 대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6. 추미경 외(2014b), 『일반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가이드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7. 추미경 외(2015), 『2014년도 문화다양성 연수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8. 피에르 부르디외 저, 최종철 역(2006[1979]),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49. 피터 버크 저, 강상우 역, 이택광 해제(2012[2009]), 『문화 혼종성: 뒤섞이고 유동하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 이음.
50. 한건수(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지식DB 심층이슈분석 제3호 2014.11.25.

참고문헌

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 한준(2014),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현주소」,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포럼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3. 현상윤(2010[1949]), 『조선유학사』, 심산.
54. 西川長夫, 한경구 역(2006),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55. 小熊英二(1995), 『單一民族神話の起源』, 新曜社.
56. Gellner, Ernest(1983), *Nations and Nationalism*, Blackwell Publishing Ltd.
57. Kymlicka, Will(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58. Levi-Strauss, Claude, trans. by Jane Marie Todd(2013[2011]), *The Other Face of the Moon*, The President and the fellows of Harvard college.
59. Tylor, Edward B.(1871), *Primitive Culture*, J. P. Putnam' s Sons.

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과제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arts change the world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2015. 7